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27 FEBRUARY
2022

2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27 February 2022

발행일 : 2022년 2월 28일

인쇄일 : 2022년 2월 28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계용택, 김자영,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이 결과물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146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1081461)

목 차

▶ 북극에서 신냉전: 러시아와 NATO를 중심으로	-----	1
	한종만	
▶ 극동시베리아 도시 이야기: 블라디보스토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	16
	곽성웅	
▶ 북극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내용 분석	-----	23
	계용택	
▶ 고고학 자료로 본 사할린섬 중기신석기시대 해양자원 활용에 대한 일고찰	-----	30
	방민규	

북극에서 신냉전: 러시아와 NATO를 중심으로*

한종만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 소연방 해체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 러시아의 강대국으로 복귀(‘소련몽’), G2로 부상한 중국이 G1로 굴기한다는 ‘중국몽’의 실현화 과정에서 러.중 협력 심화

■ 신냉전 혹은 냉전 2.0 시대: 러.중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 평화, 자유, 민주주의, 영토 및 문화 존중 등)와 국제법규의 위반과 무시(조지아 침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남/동중국해 군사시설 구축 등), 권위.전체주의 체제와 미국 중심의 서방 세력 간 경쟁.갈등.긴장.분규 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편 나누기’ 현상은 다층적 및 복합성을 함의하고 있지만 과거 미.소 간 냉전체제와 유사함

■ 기후변화로 인간의 접근이 더욱 쉬워지면서 북극의 글로벌화: 북극 이슈(지정학적 이슈: 영토, 영해 관할권, 안보 등, 지정학적 이슈: 자원, 항로 이용 등)와 관련해서 북극이사회(회원국, 옵서버 국 등)의 당사자 간 협력과 더불어 경쟁과 갈등도 병존

■ 이 글에서는 북극에서 러시아와 NATO 간 신냉전의 배경과 현황과 이슈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세계 공공재인 평화를 위한 긴장 완화와 협력 가능성 분석

II. 북극에서 신냉전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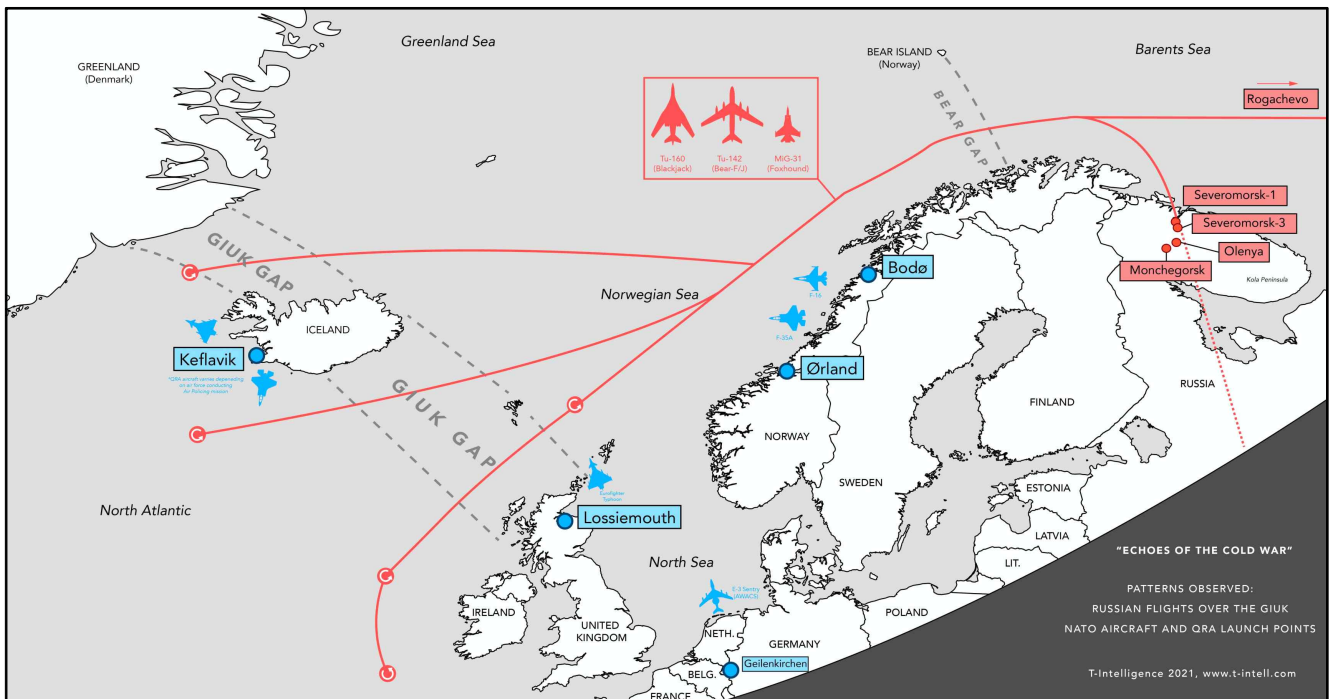
■ 북극에서 신냉전의 배경은 “달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즉 러시아의 hard power 강화냐 아니면 NATO의 동진이나 이슈로 집약됨

■ 북극에서 러시아 군사력 강화의 배경: 자연 지리적 환경
영원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의 지정학적 예외주의’ 상실: 동.서.남뿐만 아니라 북부 전선 가능성 증대(동쪽으로 베링해, 축치해, 보퍼트해 그리고 서쪽으로 노르웨이해, 바렌츠해); 알래스카는 미

* 이 글은 2022년 2월 8일 제22차 한국-시베리아센터 콜로키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국의 먼 지역이지만, 시베리아와 북극은 러시아연방의 필수적이고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형성; 러시아연방의 육상면적은 1,700만 9,800km², 러시아연방 북극공간의 면적이 약 500만km², 러시아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3만 7,653km 중 북극양 해안선의 길이는 24,140km로 전체 북극 해안선의 53%, 전체 러시아 해안선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음; 지구상에 북극점에 가장 가까운 섬은 프란츠 요셉 랜드 제도로 북극점까지 950km 떨어져 있으며, 이 제도의 루돌프(Rudolf Island) 섬의 플리겔리 콧(Cape Fligely)에서 거리는 911km¹⁾로 러시아는 명실공히 북극 제국

<그림 1> GIUK & Bear Gap 전도



자료: "Echoes of the Cold War: Why 'bears' Like the G.I.U.K gap," *T-Intelligence*, Mar. 30, 2021.

■ 러시아 해양 안보의 자연 지리적 취약점: 러시아는 세계 1위 영토 대국에 걸맞게 동쪽으로는 북태평양(베링해, 오호츠크해, 동해), 서쪽으로는 발트해, 남쪽으로는 흑해(아조프해, 카스피해 포함)연안을 보유하고 있지만 발트해, 흑해, 베링해에서 대양으로 나아가는데 초크 포인트 혹은 간극(gap)이라는 장애물을 돌파해야 함²⁾; 북극해는 대양으로 진출하는데 다른 방면보다는 양호하지만 빙상과 열악한 자연환경 외도 Bear(노르웨이 노스케이프-베어 섬-스발바르) Gap, GIN(그린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 GIUK(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 갭을 통과해야 가능

1) "Russia. Facts and Figures, The Arctic," The Arctic Institute, Washington, D.C., Jun. 19, 2020.
 2) 불가강은 카스피해로 돈강은 흑해로 흘러 들어가며, 불가-돈강 운하로 카스피해와 흑해 연결, 네바강.라도가호.오네가호 운하로 발트해와 백해 연결이 가능한 결과 모스크바는 5개의 바다(백해, 발트해, 흑해, 아조프해, 카스피해)로 연결되어 있다. 한종만 외, 『러시아의 지리』 대우학술총서 535 (서울: 아카넷, 2002년), p. 193.

■ **북극의 지정·지경학적 가치의 구현화를 통해 강대국으로 복귀:** 소련의 해체를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언급한 푸틴 대통령은 집권 2기 2000년대 중반부터 ‘강한 러시아(strong Russia)’ 정책을 수행; 북극에서 자원개발³⁾, NSR 이용, 인프라 개발, 북극에서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경제개발 등의 정책뿐만 아니라 120만km²에 달하는 북극해 영유권(로모노소프와 멘델레프해령) 확보, NSR 관할권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북극 군 인프라 전략자산의 증강과 제도 재편 <2020년 3월 ‘2035 북극 국가정책의 기초’, 동년 10월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의 북극지역 개발 전략과 국가안전보장’(2035 북극전략) 채택 등>⁴⁾; 2014년 4월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푸틴은 “북극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특별한 관심 영역이며, 군사, 정치, 경제, 기술, 환경, 자원 등 국가 안보의 실질적인 모든 측면이 집중된 곳”이며 “강대국으로 복귀를 가능케 하는 곳”이라고 선언

■ **러시아의 정체성 홍보와 푸틴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북극 이용:** 북극의 신비주의와 북극 정체성의 확대, 애국·민족주의의 이용; 2012년 MGU(모스크바국립대학교) 학자들은 북극해를 ‘러시아해’로 명명 제안 등⁵⁾;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전통주의, 민족주의, 강력한 지도력, 서방과 NATO의 대결이 러시아 국가 정당화의 중심 서사로 작용; ‘러시아 2035 북극전략’은 제1단계(2020-24년), 제2단계(2025-30년), 제3단계(2031-35년)로 설계된 점은 푸틴이 헌법 개정으로 2036년까지(1단계는 2024년까지 대통령 임기 종료, 제2단계는 5대 대통령 임기 기간과 같으며, 제3단계는 6대 대통령 취임 시기인 2030년부터) 정권 유지를 가능케 하면서 ‘북극 정체성’(러시아 정신과 관련하여 북극은 신성한 도덕적, 심리적 중요성을 지니며 정치 체제나 시대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북극 접근 방식은 연속성이 특징)⁶⁾ 제고와 강대국으로 복귀를 통해 권위주의적 권력 유지의 목적이 농후함; 실제로 2002년 몰도바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지역 러시아군 주둔, 2008년 그루지야 전쟁(남오세티아공과 압하지야공 획득), 2013-14년 우크라이나 돈바스(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 개입)와 크림반도 합병 등의 러시아군의 빠른 개입과 승리로 푸틴의 국민인기도는 올라감; 특히 2022년 초 카자흐스탄 시위 진압을 위해 러시아 주축의 CSTO(집단안보조약기구)군 투입과 최근 일촉즉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지만 속전속결의 승리 보장 혹은 NATO의 강력한 대응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셈법 속고 증대

■ **NATO의 동진(발트 3국, 동유럽과 남동부 유럽국가 가입으로 현재 30개국으로 확대)과 러시아의 안보 이슈:** 1949년 창설된 NATO 창설 회원국은 북미와 서유럽 12개국(미국, 캐나다,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제1차 확산은 1952년 그리스와 터키(키프로스 침공으로 1974년 회원국 지위 유예, 1980년 유예 해지), 제2차 확산은 1955년 서독(통일 후 1993년 엘친의 독일 가입 인정), 제3차 확산은 1982년

3) 러시아 북극권 자원(미개발된 광물자원과 석유·가스)의 가치는 35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Holly Ellyatt, “Russia is dominating the Arctic, but it’s not looking to fight over it,” *CNBC*, Dec. 27, 2019.

4) 북극전략 2035 기본계획과 2045 전략의 전문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러시아 2035 북극 전략’의 내역과 평가,” 한종만, 라미경 외, 『지금 북극은 제3권 북극: 지정·지경학적 공간』 학연문화사, 2021년 9월 30일, pp.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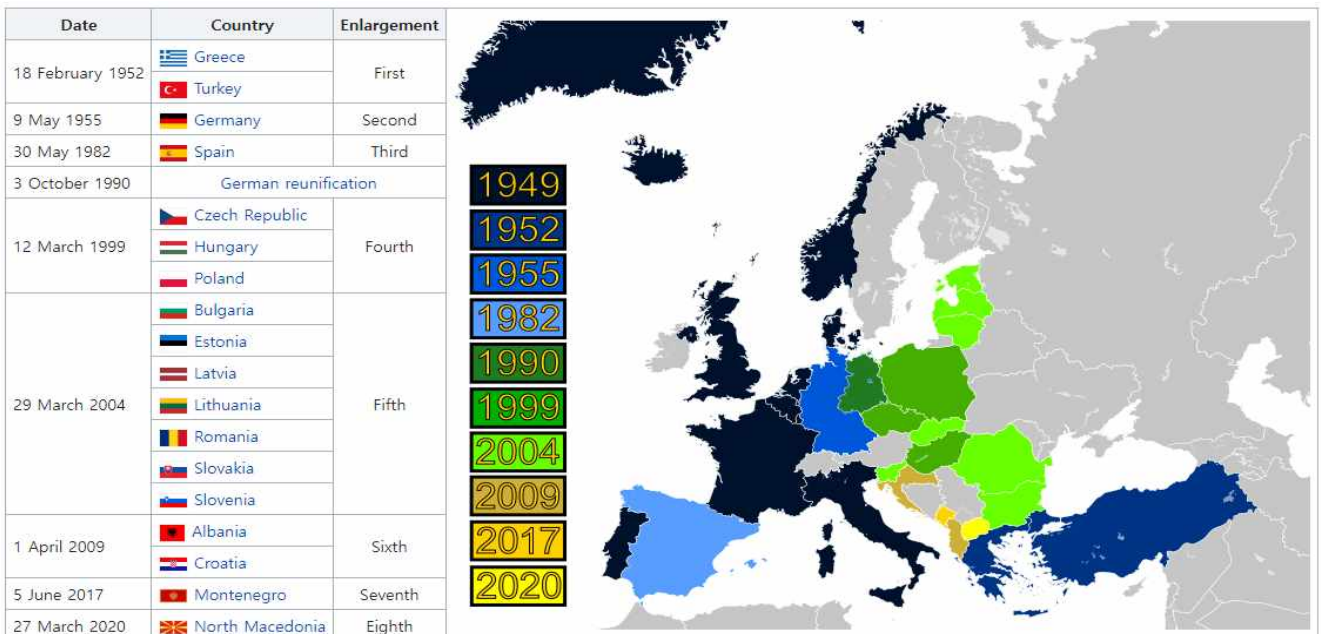
5) Martin Breum, Cold Rush. *The Astonishing True Story of the New Quest for the Polar North*, Montreal/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8, p. 8

6) Сергей Суханкин, “Есть ли России арк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Riddle*, 08.05.2020.

스페인, 제4차 확산은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제5차 확산은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제6차 확산은 2009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제7차 확산은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8차 확산은 북마케도니아로 2020년 기준으로 30개국(<그림 2> 참조)으로 확대; 가입 논의 국가로는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몰도바, 세르비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평화파트너십(PfP: Partnership for Peace)’과 ‘국경나토회원국(Border NATO member states)’ 멤버; 몰타는 PfP와 EU 회원국; 키프로스 EU 회원국 지위만;

러시아와 NATO 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은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북극권 국가 8개국 중 5개국은 NATO 창설 멤버,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에 가입국은 아니지만 NATO 훈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임; 또한 북극이사회 상임 옵서버 유럽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들이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NATO에 포위됐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러시아 북극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를 정당화; 그러나 러시아는 소련보다는 군사력이 약화됐지만 핵.재래식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2000년 중반부터 군 현대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NATO의 최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해 러시아는 안보 이슈에 과민 반응이 크다고 생각됨; 특히 새로 가입한 NATO 멤버로 발트 3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남부 유럽국들과 노르딕 북극권 국가들도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소련몽과 같은 호전적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으로 각국의 안보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NATO와의 군사 협력의 강화를 원하고 있음; 러시아는 문서로 안보 보장(구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 인접국 나토 무기 철수 등), 미국은 창설부터 주요 원칙인 NATO의 개방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 차이의 간극은 뚜렷함; 유럽 주요 NATO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동맹 강화 증대함

<그림 2> NATO의 확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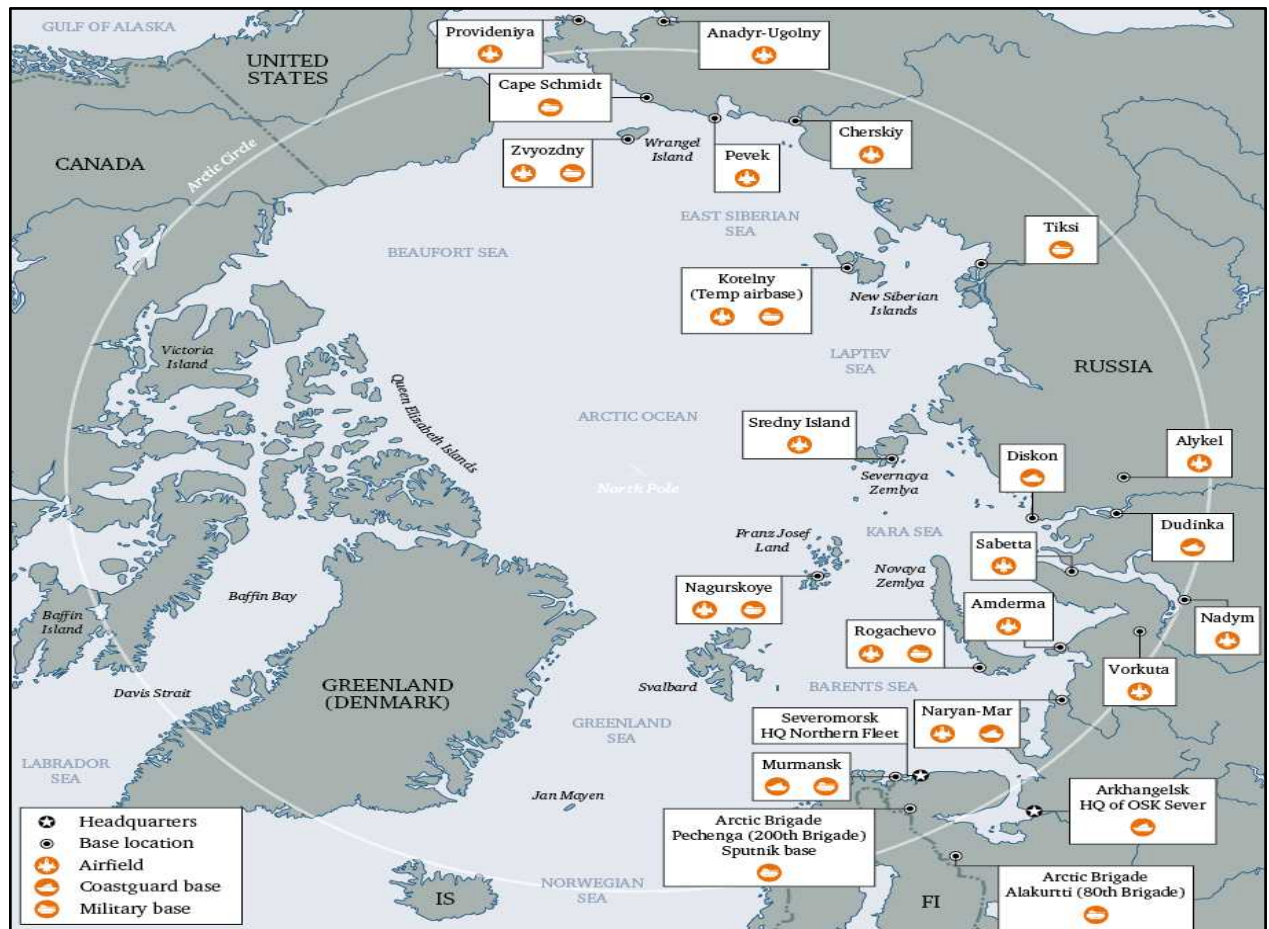


자료: “Enlargement of NATO,” From Wikipedia, the fre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nlargement_of_NATO (검색일: 2022년 2월 18일).

III. 북극에서 신냉전의 현황과 이슈: hard power를 중심으로

■ 북극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1987년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 이후 북극은 ‘평화와 협력’의 공간 유지(2006년 북극이사회 출범)와 1991년 소연방 해체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의 해체로 NATO는 ‘이빨 빠진(Toothless)’ 기구로 전락하면서 북극에서 탈냉전이 가시화됐지만 2007년 러시아의 북극점 근처 국기 게양 사건과 북극권 공군 정찰자산이 가동되면서 북극권 국가들도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냉전 시대 때 북극의 지정학적 및 지전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군사력 강화; 소련 시대 때 사용됐던 북극권 섬들과 육상의 공군 기지들의 재가동, 일부 기지는 새롭게 구축: NSR을 따라 추코트카 자치구(5개) 아나디르-우골니, 프로베디냐, 페벡, 체르스키 기지의 재가동과 새로 건설된 브란겔 섬 즈베즈드니 기지와 사하공화국(1개)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코텔니 템프 기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2개) 노릴스크 근처 알리켈, 세베르나야 제물라 제도 스투드니 기지와 야말로-네네츠 자치구(2개) 내 새로 건설된 사베타 기지와 나딤 기지, 코미 공화국(1개) 보르쿠타 기지, 네네츠 자치구(2개) 암데르마와 나리안-마르 기지와 아르한겔스크 주(2개) 프란츠요셉란드 제도 나구르스코예, 노바야 제물라 남섬 로가체보 등 14개의 공군 기지들이 신축 혹은 재구축

<그림 3> 러시아 북극권 군사기지 현황



자료: Michal Chabros, “The Arctic Icebreaker: Russia’s Security Policy in the Far North,” *Warsaw Institute Special Reports*, May 18, May 2020.

<표 1> 러시아 북극권 군사기지 현황

군 기지	러시아명	위치	기능
프로비데니야(Provideniya)	Провидения	추코트카 자치구(베링해)	공군 기지
아나디르-우골니 (Anadyr-Ugolny)	Анадырь-Угольный	추코트카 자치구(베링해)	공군 기지
슈미드트 콧(Cape Schmidt)	мыс Шмидта	추코트카 자치구(축치해)	군사 기지
페벡(Pevек)	Певек	추코트카 자치구(축치해)	공군 기지
체르스키(Chersky)	Черский	추코트카 자치구(축치해)	공군 기지
즈베즈드니(Zvyozdny)	Звездный	추코트카 자치구(축치해 브란겔 섬)	공군, 군사기지
틱시(Tiksi)	Тикси	사하공화국(동시베리아 해)	군사기지
코델니(Kotelny) 템프 공군 기지(Temp airbase)	Котельный (авиабаза Темп)	사하공화국(노보시비르스크제도, 랍테프 해)	공군, 군사기지
스레드니 섬(Sredny Island)	остров Средний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세베르나야 제물라 제도, 랍테프 해)	공군 기지
알리켈(Alykel)	Алыкель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공군 기지
딕손(Dikson)	Диксон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카라해)	해안경비기지
두딘카(Dudinka)	Дудинка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예니세이 강, 카라해)	해안경비기지
사베타(Sabetta)	Сабетта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카라해)	공군 기지
나구르스코예(Nagurskoye)	Нагурское	아르한겔스크 주 제물라 프란츠 요셉(이오시파) 제도(바렌츠 해)	최북단 공군, 군사기지
나딤(Nadym)	Надым	야말로-네네츠 자치구(나딤 강, 카라해)	공군 기지
보르쿠타(Vorkuta)	Воркута	코미 공화국	공군 기지
암데르마(Amderma)	Амдерма	네네츠 자치구(카라해)	공군 기지
로가체보(Rogachevo)	Рогачево	아르한겔스크 주 노바야 제물라 제도 남서쪽 (바렌츠 해)	공군, 군사기지
나리안-마르(Naryan-Mar)	Нарьян-Мар	네네츠 자치구 수도(페초라 해)	공군, 해안경비
아르한겔스크 OSK 북부본부 Arkhangelsk HQ OSK Sever	Архангельск, Штаб ОСК Север	아르한겔스크 주(백해)	해안경비, 러시아 북부 통합전략사령부*
무르만스크(Murmansk)	Мурманск	무르만스크 주(바렌츠 해)	군사, 해안경비
세베르모르스크 북부함대 본부 (Severomorsk HQ Northern Fleet)	Североморск, Штаб Северного флота	무르만스크 주(바렌츠 해)	북부 합동 전략사령부 본부
알라쿠티 북극여단 (Arctic Brigade Alakutti)	Арктическая бригада Алакутти	무르만스크 주	군사 기지 (80 여단)
페첸가 북극여단 스푸티닉 기지 (Arctic Brigade Pechenga Sputnik Base)	Арктическая бригада Печенга База Спутников	무르만스크 주	2015년 군사 기지 (200 여단)

주: * 러시아 북부 통합전략사령부(OSK Sever: Объединенн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России и, Север)는 북부함대를 주축으로 2014년 12월 1일 설립됨. 러시아명과 위치는 필자가 재구성함.

자료: 한종만, “북부해항로(NSR)와 러시아의 해양 안보: 현황과 이슈,” 『해양안보논총』 (한국해양안보포럼), 제3권 제2호(통권 제6호), 2020년 12월, pp. 143-144.

■ 북부함대의 위상 강화⁷⁾: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부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 무르만스크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추코트카에 흩어져있는 군 자산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북부 해로를 따

7) 북부함대의 재편과 전력자산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한종만 “러시아의 북극정책 과정에서 북부 함대의 군사력 강화 현황과 배경,” 『한국해양안보포럼 e-Journal』 (한국해양안보포럼) 2020년 10-11월호, pp. 1-10.

라 육상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북부함대(본부는 세베로모르스크)를 주축으로 ‘북부합동전략사령부(Joint Strategic Command North)’가 설립(사령부는 아르한겔스크에 본부)했으며 사령관은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Aleksandr Moiseyev)제독; 북부함대의 전략적 역할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북부합동전략사령부’는 러시아의 기존 4개 군관구(서부, 남부, 중부, 동부)와 동일한 지위 부여; 군관구 재편으로 코미공, 아르한겔스크주, 무르만스크주, 네네츠 자치구는 북부 합동전략사령부의 일부가 되며 서부 군관구에 속하지 않음; 북부함대는 제5 군관구의 지위를 가지면서 유럽러시아(바렌츠) 북극권과 우랄/시베리아/극동(야말로-네네츠자치구,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사하공, 추코트카 자치구) 북극권 전체 관할권을 획득;

북부함대는 북극권에서 정규 군사훈련 강화, 고북극 탐사(2009년 5개의 섬 발견), 전함과 잠수함의 현대화, 콜라반도에 2개의 북극여단 창설, 북극권 13개의 공군기지 건설, 10개의 수색구조(SAR)기지 구축은 물론 바렌츠/카라해의 코텔니 섬(템프 기지), 알렉산드라 랜드(나구르스코에 공군기지), 극동 북극권의 브란겔 섬, 케이프 슈미드타, 텍시 등 500개 이상의 군사시설을 구축했으며 업데이트될 예정. 또한 ICBM의 재구축, 첨단 수륙 양용 항공기(Be-200)와 전략 폭격기의 배치, 첨단 레이더 기지구축, S-400 방공 시스템을 노바야 제믈랴 남섬(로가체보 기지)에 배치했으며, 북극권 주요 군사기지에 배치될 예정; 러시아 북부함대는 해군 전력의 3분의 2, 핵 자산의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무기를 포함한 무기 제품의 60%를 사용;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러시아 해군 4개 함대(카스피해 소함대 포함)는 잠수함 69척, 전함 218척을 보유;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총 69척 중 북부함대가 운영하는 잠수함은 42척으로 전체 잠수함 전력의 61%를 보유; 그 중 핵잠수함의 수는 32척이며 10척은 디젤동력의 잠수함; 2027년경 보레이(Borei) 급(제4세대) 핵잠수함 10척(5척은 북부함대 배치 예정)과 제5세대 야센(Yasen)급 핵잠수함 5척을 북부함대에 배치될 예정; 냉전 이후 건조된 잠수함은 러시아가 만든 최고의 잠수함으로 여겨지며 NATO와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⁸⁾ 북부함대는 NSR과 베링해협을 통해 태평양함대, 백해-발트해운하를 통해 발트함대와 연결, 흑해함대는 아조프해와 돈강과 볼가운하를 통해 카스피해 소함대와 연결; 러시아 해군은 2019년, 2020년 8월 ‘해양방패훈련(Exercise Ocean Shield)’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북부함대, 발트함대, 태평양함대, 흑해함대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⁹⁾

■ 북극에서 러시아 북부함대의 초크 포인트 돌파, ‘접근금지.영역거부(A2.AD)’ 및 ‘요새’ 전략 강화: 냉전 시대 때 NATO의 소련 핵잠수함의 대서양 진입을 막기 위한 GIUK, GIN, Bear Gap의 지정, 지전략적 가치의 중요성 부상(이 gap은 러시아와 NATO 동맹국에서 접근과 작전 등 자유항행의 핵심적 관문): NATO도 이 gap을 통해 러시아 북부함대의 북대서양 진출 억제와 군사작전에서 연중 모니터링; 러시아는 냉전 시대 때 북극의 ‘요새(Bastion) 방어’ 전략 재정립,¹⁰⁾ ‘접근금지.영역거부(A2.AD:

8) Maren Garberg Bredesen & Karsten Friis, “NATO’s Challenges, Old and New Missiles, Vessels and Active Defence: What Potential Threat Do the Russian Armed Forces Represent?,” *The RUSI Journal*, Vol.165, Issue 5-6, 2020, p. 70.

9) 한종만,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평가: 북극을 중심으로,” 『E-저널 한국해양안보포럼』 (한국해양안보포럼), 제52호(8-9월호, 2021년), p. 7.

10) 전략 탄도 미사일 잠수함과 관련 기반시설이 폐쇄되고 잘 방어된 해양 지역 또는 ‘요새’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지리적 엄폐(예: 빙상)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센서, 기뢰, 해안 및 지대공 미사일, 해상 및 공중 자산 능력을 포함한다.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은 방어를 위한 개념이지만 충돌 시 확전에 대비하면서 기존 군사 기반시설과 요새에 배치된 무기체계는 방어에서 공격 작전으로 전환 가능함; 모바일 S-350 방공 시스템과 S-300 PM 및 S-400은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노바야 제믈랴, 알렉산드르 섬, 브랑겔라 섬 등에 배치, 업그레이드된 S-500 배치 예정

러시아는 이 간극(초크 포인트)을 격파하는 훈련 강화<NATO의 증원을 지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SLOC(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훼손>; 2019년 10척의 핵잠수함 북대서양 항행과 2021년 3월 핵잠수함 3척이 제믈라이오시파프란츠 제도 주변에 동시 부상과 2대의 MIG-31 항공기와 Umka-21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지상군과 합류; 국제 정세가 더 긴장될수록 요새 전략은 북극의 하드 안보 계산의 요소로서 더욱 중요; 북극에 중거리 방공 시스템의 배치는 러시아의 A2/AD 능력을 상당히 향상; GIUK gap까지 “러시아의 잠수함 활동은 현재 냉전 수준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¹¹⁾

■ 푸틴의 자신감: 러시아의 절대.슈퍼 무기:

러시아는 육해공의 절대무기 혹은 슈퍼무기로 현대화: 2018년 3월 공개된 길이 24m, 100메가톤급 수중 드론 포세이돈 핵무기는 ‘둠스데이(Doomsday)’ 무기: 2021년 6월 백해에서 첫 시운전을 위해 출항한 벨고로드 잠수함은 이 드론 최대 6대를 수송할 것으로 예상. 포세이돈 드론은 수천 킬로미터를 자율적으로 이동하고 상대국 해안에서 폭발하여 방사능 오염을 통해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 ‘기적의 무기’는 미국, NATO 미사일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음; 비교를 위해 1961년 노바야제믈랴에서 실험한 핵무기<‘차르 봄바(Царь Бомба): 황제 폭탄>가 히로시마 핵폭탄 폭발 효과의 약 3,000배인 58메가톤이란 점을 고려할 때 드론 포세이돈 핵탄두는 지구 종말의 무기;¹²⁾ ‘핵추진 대륙 간 순항미사일’(nuclear powered intercontinental cruise missile)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마하 20 RS-26 아방가르드’, 양날을 가진 단검(Kinzhal)을 뜻하는 공대지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킨잘’,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Zirkon)을 백해 프리팅기함에서 발사 실험, 요격 불가능한 RS-28 ‘사르마트(Сармат)’ ICBM 미사일은 프랑스 면적 혹은 텍사스 초토화: 사르마트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거의 모든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무력화; 보레이급 핵잠수함(유리 돌고르키,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블라디미르 모노마흐 함 등) 1척의 화력은 2천만(20메가t) 이상으로 웬만한 국가의 야전군 전체 화력을 능가;¹³⁾

러시아는 세계 유일의 핵추진 쇄빙선 함대와 디젤 쇄빙선은 순항 미사일과 무장 쇄빙선(이반 파파닌, 일라 무모레츠 등)은 전자전 시스템 무장할 수 있어 공격 및 방어 능력¹⁴⁾

11) House of Commons Defense Committee, *On Thin Ice: UK Defence in the Arctic*, 2018, p. 20.

12) Michael Paul und Göran Swistek, “Russland in der Arktis: Entwicklungspläne, Militärpotential und Konfliktprävention,” *SWP-Studie*, No.19, Berlin, Oktober 2021, p. 7.

13) “푸틴이 공개한 러시아의 차세대 ‘슈퍼 무기’ 5종,” 『연합뉴스』 2018년 3월 2일.

14) 러시아의 쇄빙선 현황과 건조 계획은 다음의 글 참조. 한종만, “2035년까지 러시아의 북극 쇄빙선 인프라 프로젝트의 필요성, 현황, 평가,” 『한국시베리아연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제24권 2호, 2020년, pp. 1-35.

■ **북극에서 러시아의 공격 시나리오:** 러시아가 북극에서 NATO 활동의 증가로 위협을 받게 된다면 크림반도에서와 같이 스발바르나 심지어 북부 노르웨이까지 공격: 러시아와 노르딕 선박 및 항공기 정찰 등 대결 상황은 북부함대가 효과적인 공격 옵션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전환; 여기에는 북부 스칸디나비아 일부(스발바르 포함)의 정복과 같은 공세 작전이 포함; 즉, 러시아 군대는 지리적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된 우위를 달성; 러시아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과 NATO 동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빠른 선점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실제로 러시아 Zapad(서부) 2017, 2021 훈련에서 북부 노르웨이 공격 모의실험; 이 작전에서 하이브리드 전략 구사<전자, 정보, 기만, 심리, 바그너 그룹(실체가 없는 러시아의 비공식 민간군사기업) 등>; 예를 들면 러시아의 표적으로 스발바르의 하이브리드 침공 가능성은 NATO의 아킬레스건¹⁵⁾(Гурков 2021; Уитер 2021, Wither 2021) 미 해군과 NATO도 새로운 전략에서 이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음;

■ **북극에서 NATO의 군사력과 군사훈련 강화:** 북극에는 미국·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에 배치된 군사 자산이 약 50여 개, 22개의 비행장, 23개의 해군기지, 북극 지역의 핵 공격 방어를 위한 4개의 레이더 스테이션, 최대 19,000명의 군 병력 상시 배치; 미국 해군의 제2함대 재창설; 2018년 NATO는 Trident Juncture라는 이름으로 노르웨이와 유럽 북극해에서 냉전 종식 이래 최대 규모의 연합군 기동 작전 수행; 50,000명의 군인, 250대의 항공기 및 65척 군함 참여; 이 기동에는 노르웨이 점령 지역의 탈환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및 노르웨이 사이의 해역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 항공모함의 개입; NATO 선박이 바렌츠해를 순찰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¹⁶⁾; 북극에서 전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근 일촉즉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북극(북대서양·북태평양)까지 확대되는 국지전, 전면전 혹은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북극에서 NATO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증대:** NATO 맥락에서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영국은 북극 국가로 간주;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와 발트함대를 고려한 확장된 해석은 발트해 연안 국가와 발트해와 접경하는 NATO 국가를 포함; NATO의 지리적 정의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북극 안보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 또한 NATO의 확장으로 발트해, 흑해, 아드리아해 연안국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 압박 가능함

■ **미국: 러시아 도전에 대한 모호함에서 구체적 대응:** 냉전 이후 북극해가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한 도전에 대해 본질적으로 세 가지 대응: 기본적인 미국의 북극 국가 안보 이익에는 미사일 방어 및 조기경보가 포함; 전략적 공수, 전략적 억제, 해상 주둔 및 해상 안보 작전을 위한 해상 및 항공 시스템 배치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장; 2018년 1월, 해안 경비대 사령관 Paul Zukunt는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포함하여 최소 40척의 러시아 해안 경비대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새로운 대형 쇄빙선 함대가 설계될 것이라

15) Джеймс К. Уитер, “СВАЛБАРД «АХИЛЛЕСОВА ПЯТА» НАТО В АРКТИКЕ,” *per Concordiam*, 8 сентября, 2021.

16) Jack Watling. “NATO’s Trident Juncture 2018 Exercise: Political Theatre with a Purpose,” *RUSI*, Nov. 20, 2018.

고 발표: 2019년 6월에는 북극이 미국 본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국의 세 가지 주요 북극 국가 안보 이익을 강조하는 국방부(DOD)의 북극 전략 발표: 세 가지 이익 범주의 측면에는 조기경보 및 미사일 방어를 통한 미국 방어, 미국의 중요 기반시설 보호; 지역적 미국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역 인식 달성 조기 경보 및 미사일 방어를 통해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중요 기반시설 보호; 미국의 이익에는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강대국 계획을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악의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극을 경쟁 통로로 활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

북극에서 미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는 지상 레이더와 우주 기반 능력을 포괄하는 다중 영역 센서로 영역 인식에 대한 계층적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현대화, GIUK 간극에 대한 해상 감시 강화 등이 포함;

P-8 포세이돈 대잠 항공기 순찰을 운영하는 영국 및 노르웨이와 북대서양에서 고주파 무선 신호를 저하시키는 태양 및 자기 현상으로 인한 대기 간섭으로 인해 북위 65° 이상에 존재하는 통신 문제 해결 및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해빙, 해류, 바람, 물, 대기 온도, 해수 분무 및 결빙 조건으로 인해 임무 요구를 충족하고 인력 및 장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관찰을 늘리고 환경 모델링을 개선

공군은 2020년 7월 북극 전략(Arctic Strategy) 발표: 미국의 전략적 완충 장치로서의 북극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강대국 경쟁자들의 진출로 인해 북극이 본토에 대한 위협 경로가 되었다고 지적; 공군은 알래스카, 캐나다 및 그린란드에 시설을 통해 DOD 북극 지역 자원의 거의 80%를 제공; 신생 미군 우주군 역시 국가 경쟁자들의 위협과 함께 북극 고유의 궤도 역학 및 전자기 장애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강조; 결과적으로 Space Force는 동맹국 및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의 우주 및 북극 목표를 해결하고, 기존 북극 자산을 현대화하여 우주에서의 접근 및 작전 자유를 보장하고, 고유한 경 교란을 완화 및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고안;

Biden의 취임 후 몇 주 만에 노르웨이에 B1 폭격기 비행대가 배치; 북극에서 러시아 해군력의 강화는 미국과 NATO 회원국의 군사훈련 정례화와 강화는 물론 새로운 기지(예를 들면 노르웨이 3개의 공군기지와 1개의 해군기지 제공 등) 확대; 러시아와 NATO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신냉전 혹은 군비 확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NATO 및 회원국의 국방전략 및 해군전략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계기를 조성¹⁷⁾

■ **노르웨이: 북극에서 러시아를 모니터링하는 눈과 귀:** 노르웨이는 NATO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극에서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점점 더 적극적이며, 고북극을 노르웨이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간주; 2020년 12월 초, 노르웨이 의회는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 및 현대화하고 더 높은 국방 지출로 뒷받침되는 준비태세를 높이는 2021-24년에 대한 새로운 장기 국방 계획 조성; 최대 52대의 F-35(88억 9,500만 달러) 배치; 2015년에는 징집을 여성으로 확대하고 2015-2016년 사이에 국방 지출을 2.6% 증가시켜 NATO의 중요성을 재확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러시아와의 북부 국경에 집중할 새로운 레인저 중대를 설립; 이동식 대공 방어시스템 및 장거리 정밀 화력 조성; 노르웨이의 대응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중단하되, 러시아와의 소통(양국

17) 미국의 북극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David Auerswald, "A U.S. Security Strategy for the Arctic," *War on the Rocks*, May 27, 2021.

간 군사 핫라인 유지)을 유지해 군사 활동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오해와 위험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 노르웨이 영토에서의 군사훈련에서 연합군과 장기 협력의 유지; 북극에서 NATO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노르웨이 북부에 군사기지 재구축¹⁸⁾

■ **아이슬란드: 군사적 약점과 집단적 책임:** 아이슬란드는 북극 국가이자 NATO 창설 회원국이지만 북극의 전략적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이나 인구가 없음; 북극에서 NATO의 강력한 지지자; 자체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는 안보를 NATO에 의존; NATO 해군 초계기의 가장 큰 기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 케플릭 공군기지에는 2015년부터 미국 및 동맹국의 대잠수함 재배치¹⁹⁾

■ **덴마크: 그린란드 지위 유지와 한스 섬 분쟁:** 전통적으로 북극에서의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북극에서 NATO 참여에 노르웨이보다 덜 열성적; 그린란드는 미국 탄도 미사일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툴레 공군기지의 본거지; 덴마크와 캐나다는 12마일 영토 제한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 22마일 너비의 나레스 해협에서 무인도 한스 섬의 소유권을 놓고 논쟁; 덴마크는 미래의 F-35A 전투기를 포함하여 그린란드에 공군을 재배치할 계획²⁰⁾

■ **캐나다: 무임승차 및 북극 보안:** 캐나다 영토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북극 정책은 북부 해역을 주권적인 국가 영토로 선언(미국과 보퍼트해와 북서항로의 관할권 이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혹은 이러한 수사를 뒷받침하지 않고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접근을 제한하려는 욕망으로 특징; Stephen Harper의 정부(2006-2015년)에서 캐나다는 NATO가 북극에서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NATO 문서에서 북극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기 위해 로비; 최근 북극 외교정책과 북극의 NATO에 대한 관점의 변화: 트뤼도 정부의 2017년 국방 정책 문서는 북극에서 NATO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는 열망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입장의 주요 변화²¹⁾

■ **핀란드와 스웨덴: 북극과 국가 불안 혹은 집단 안보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 핀란드의 2017년 국방백서는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기간이 단축되고 무력 사용의 문턱이 낮아진 발트해의 군사 활동 및 긴장이 증가하고 콜라반도에 기반을 둔 러시아 전략 무기가 이러한 긴장 증가의 주요 요인임을 언급;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의 긴밀한 파트너이며 종종 NATO 훈련 및 임무에 참여; 스웨덴과 핀란드는 군대를 NATO 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NATO와의 상호운용성을 강조; 친 NATO 그룹이 만들어졌으며 NATO 가입 지지율(약 30%) 증가; 2014년 러시아 고위관리는 핀란

18) 노르웨이 북극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Andreas Østhagen, "Norway's Arctic policy: still high North, low tension?," *The Polar Journal*, Vol.11, Issue 1, 2021, pp. 75-94.

19) 아이슬란드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Government of Iceland, "National Security," <https://www.government.is/topics/foreign-affairs/national-security/> (검색일: 2022년 2월 8일).

20) 덴마크(그린란드)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Marc Jacobsen, "Arctic Aspects in Denmark's New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trategy," *The Arctic Institute*, Feb. 8, 2022.

21) 캐나다의 북극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Jeff Collins, "On the Arctic Watch: WHY We Need to Protect Canad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 the Far North," *The North in Canadian Public Policy*, Jan. 17, 2022.

드의 나토 가입 시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선언; 2015년 스웨덴 국방 정책에서는 스웨덴과 발트해 지역의 항공 및 해상 항로를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시 시나리오 계획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 2020년 12월 스톡홀름 의회는 'NATO 옵션'에 대해 다수결로 투표; 2020년 12월, 스웨덴 의회는 전시 전력 구성의 계획 목표를 55,000명에서 90,000명으로 늘리고 국방예산을 40% 늘리는 새로운 군대 개발 계획을 승인²²⁾

■ 북극에서 러시아와 NATO 간 군사 경쟁으로 블록으로 확전 가능성: 러시아의 북극 개발(중국 참여)과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NATO 북극권 국가들의 반작용으로 안보 부문의 협력이 강화로 경쟁과 갈등이 악순환되고 있음; 그 예로써 북극에서 NATO와 러시아는 육해공의 군사 자산의 현대화와 군 기지 구축은 물론 군사훈련의 강도와 빈도가 증대되는 현상 가속화; 안보 부문의 강화는 군비경쟁과 북극의 평화 지대와 저 긴장 상황에 지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북극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러.중.CSTO 혹은 북.중.러와 NATO.EU 혹은 퀴드.오커스.한미일 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존재함

■ 북극에서 신냉전으로 국방예산의 증대: SIPRI에 따르면, 2019년 모든 NATO 회원국(2020년에 가입한 북마케도니아 제외)의 총 군사비 지출은 1조 350억 달러, 2020년 전 세계 국방예산의 규모는 1조 9,800억 달러로 미국은 GDP의 3.4%로 7,780억 달러로 세계 점유율은 39%, NATO 국방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함;²³⁾ 최근 군사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방비는 미국의 11배, 중국의 4배나 적은 수치이며,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지위도 중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핵 강국이며, 국방산업의 재건과 현대화, 특히 북극 안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북극에서 선도적 위치를 담당하고 있음

IV. 북극에서 저 긴장 유지 혹은 경쟁 완화 및 협력 강화

<표 2> 북극권 관련 주요 제도/기구

주요국	A5	AC/A8	APO	BEAC	CBSS	NATO	NORDFE CO	NC	NG	G20/G7	UNSC
미국	○	○				○				○/○	○
러시아	○	○		○	○					○	○
캐나다	○	○				○				○/○	
노르웨이	○	○		○	○	○	○	○	○		
덴마크	○	○		○	○	○	○	○	○		
스웨덴		○		○	○		○	○	○		
핀란드		○		○	○		○	○	○		

22) 핀란드와 스웨덴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Janne Kuusela, "A view from Finland: Security and defense in the Arctic," *Defense News*, May 12, 2020; Nima Khorrani, "Sweden's New Arctic Strategy: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Face of Rising Global Uncertainty," *The Arctic Institute*, May 4, 2021.

23) 그 뒤를 이어 중국 2,520억 달러, 인도 729억 달러, 러시아 617억 달러, 영국 59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575억 달러, 독일 528억 달러, 프랑스 527억 달러, 일본 491억 달러, 한국 457억 달러, 이탈리아 289억 달러, 호주 275억 달러 순이다. GDP 대비 국방예산 중 미국(3.4%)을 능가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러시아뿐이다. SIPRI, "World military spending rises to almost \$2 trillion in 2020",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pr. 26, 2021.

아이슬란드		0		0	0	0	0	0	0	
독일			0		0	0		0	0/0	
영국			0			0		0	0/0	0
프랑스			0			0			0/0	0
이탈리아			0			0			0/0	
네덜란드			0			0		0		
폴란드			0		0	0		0		
스페인			0			0				
유럽연합				0	0			0	0	
스위스			0							
에스토니아					0	0				
라트비아					0	0				
리투아니아					0	0				
한국			0						0	
중국			0						0	0
일본			0						0/0	
인도			0						0	
싱가포르			0							

주: A5(Arctic 5), AC(Arctic Council), APO(Arctic Permanent Observers), BEAC(Barents Euro-Arctic Council), CBSS(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ORDFECO(Nordic Defence Cooperation), NC(Nordic Council), NG(Northern Group), G20(Group of Twenty), UNSC(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북극권 국가(A8)의 hard 안보 협력 지향과 한계:** 북극이사회는 지난 26년 동안 hard 안보는 배제하면서 soft 안보(인간, 과학, 환경, 기후 안보, 개발 협력 등) 이슈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2015년에 해안경비대포럼(ACGF) 창설 등 북극 거버넌스 구조에서 hard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의 부족을 인식; 북극안보군원탁회의(ASFR: Arctic Security Forces Roundtable, 2011년)와 북극 참모총장회의(ACHOD: Arctic Chiefs of Defense, 2012년) 등의 군사 포럼은 창설됐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참여는 중단됐지만 이 포럼은 존속하고 있음; 현재 북극을 특별히 겨냥한 포괄적인 안보 대화를 위한 포럼은 없음; 러시아는 2021-23년 북극이사회와 ACGF의 의장국으로 북극권 국가들과 경성·연성안보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함; 북극 관련 모든 당사국 간의 공동 ‘핫라인’과 잠재적 해상사고(INCSEA) 협정을 포함한 양자 및 다자 협상과 더불어 군사훈련 참관, 상호 접촉의 필요성; 고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 대화를 다시 활성화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평시에 합법적이고 수용 가능한 군사 관행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북극 군사행동 코드(AMCC: Arctic Military Code of Conduct)’ 적용으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통해 오판 및 긴장 위험을 줄일 수 있음²⁴⁾

■ **안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극의 ‘저 긴장’과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며 공통 관심사와 실용주의가 핵심;** 북극 강성 및 연성 안보 이슈의 협력과 경쟁 및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기구<북극이사회(AC), 바렌츠-유럽북극이사회(BAEC), 발트해연안국이사회(CBSS), 노르딕방위협력기구(NORDFECO), 노르딕이사회(NC), 노르딕그룹(NG), G7, G20, 러시아.NATO대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대화에서 양 진영 간 양보와 타협의 필요성(<표 2> 참조) 증대, 특히 일촉즉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지하기 위한 기

24) Mathieu Boulègue, “New military security architecture needed in the Arctic,” *Chatham House*, May 4, 2021.

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수단의 활용;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수단이 수사학적 장관(壯觀)이나 혹은 NATO(Not Action, Talk Only)가 되어서는 안 됨

[참고문헌]

한종만 외, 『러시아의 지리』 대우학술총서 535 (서울: 아카넷, 2002년).

---, “2035년까지 러시아의 북극 쇄빙선 인프라 프로젝트의 필요성, 현황, 평가,” 『한국시베리아 연구』(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제24권 2호, 2020년, pp. 1-35.

--- “러시아의 북극정책 과정에서 북부함대의 군사력 강화 현황과 배경,” 『한국해양안보포럼 e-Journal』(한국해양안보포럼) 2020년 10-11월호, pp. 1-10.

---, “북부해항로(NSR)와 러시아의 해양 안보: 현황과 이슈,” 『해양안보논총』(한국해양안보포럼), 제3권 제2호(통권 제6호), 2020년 12월, pp. 123-155.

---, 라미경 외, 『지금 북극은 제3권 북극: 지정·지경학적 공간』학연문화사, 2021년 9월 30일, pp. 7-60.

---,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평가: 북극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한국해양안보포럼), 제52호(8-9월호, 2021년), pp. 1-9.

Auerswald, David, “A U.S. Security Strategy for the Arctic,” *War on the Rocks*, May 27, 2021.

Boulègue, Mathieu, “New military security architecture needed in the Arctic,” *Chatham House*, May 4, 2021.

Bredesen, Maren Garberg & Karsten Friis, “NATO’s Challenges, Old and New Missiles, Vessels and Active Defence: What Potential Threat Do the Russian Armed Forces Represent?,” *The RUSI Journal*, Vol.165, Issue 5-6, 2020, pp.

Breum, Martin and Cold Rush. *The Astonishing True Story of the New Quest for the Polar North*, Montreal/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8.

Chabros, Michal, “The Arctic Icebreaker: Russia’s Security Policy in the Far North,” *Warsaw Institute Special Reports*, May 18, May 2020.

Collins, Jeff, “On the Arctic Watch: WHY We Need to Protect Canad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 the Far North,” *The North in Canadian Public Policy*, Jan. 17, 2022.

“Echoes of the Cold War: Why ‘bears’ Like the G.I.U.K gap,” *T-Intelligence*, Mar. 30, 2021.

Ellyatt, Holly, “Russia is dominating the Arctic, but it’s not looking to fight over it,” *CNBC*, Dec. 27, 2019.

“Enlargement of NATO,” From Wikipedia, the fre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nlargement_of_NATO (검색일: 2022년 2월 18일).

Government of Iceland, “National Security,”

<https://www.government.is/topics/foreign-affairs/national-security/> (검색일: 2022년 2월 8일).

House of Commons Defense Committee, *On Thin Ice: UK Defence in the Arctic*, 2018.

Jacobsen, Marc, "Arctic Aspects in Denmark's New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trategy," *The Arctic Institute*, Feb. 8, 2022.

Khorrami, Nima, "Sweden's New Arctic Strategy: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Face of Rising Global Uncertainty," *The Arctic Institute*, May 4, 2021.

Kuusela, Janne, "A view from Finland: Security and defense in the Arctic," *Defense News*, May 12, 2020.

Østhagen, Andreas, "Norway's Arctic policy: still high North, low tension?," *The Polar Journal*, Vol.11, Issue 1, 2021, pp. 75-94.

Paul, Michael und Göran Swistek, "Russland in der Arktis: Entwicklungspläne, Militärpotential und Konfliktprävention," *SWP-Studie*, No.19, Berlin, Oktober 2021.

"Russia. Facts and Figures, The Arctic," The Arctic Institute, Washington, D.C., Jun. 19, 2020.

SIPRI, "World military spending rises to almost \$2 trillion in 2020",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pr. 26, 2021.

Watling. Jack, "NATO's Trident Juncture 2018 Exercise: Political Theatre with a Purpose," *RUSI*, Nov. 20, 2018.

Суханкин, Сергей, "Есть ли России арк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Riddle*, 08.05.2020.

Уитер, Джеймс К., "СВАЛБАРД «АХИЛЛЕСОВА ПЯТА» НАТО В АРКТИКЕ," *per Concordiam*, 8 сентября, 2021.

극동시베리아 도시 이야기: 블라디보스토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곽성웅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1. 같은 듯 다른 듯한 시베리아의 도시들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는 독특한 지역이다. 아니 유럽러시아와 시베리아는 다르다. 두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성격까지 다르다. 시베리아인이 거주하는 도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 도시들에 비해 극동을 포함한 시베리아의 도시들은 나름의 특색이 있다. 물론 도시의 외형이나 거리의 형태, 건축구조물 등은 제정 시대와 소비에트 시절의 중앙통제식 도시계획으로 인해 유사하다. 예컨대, 18세기 중반 예카테리나 대제는 러시아 각 도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관장하는 석조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를 비롯한 지방 도시들의 외형을 총괄적으로 관리했다.¹⁾ 그래서 당대의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 도시 어디를 가도 페테르부르크의 골목이 보인다는 농담을 하곤 했다. 이는 시베리아만이 아니라 러시아 남부의 크라스노다르나 북부의 무르만스크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극동과 시베리아의 도시들은 중앙이 통제하는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지키면서도 그 발전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특색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이르쿠츠크와 치타에서 발견되는 데카브리스트들의 흔적들과,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타나는 아시아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들, 치타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형(流刑) 도시로서의 슬픈 기억들이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 3곳이 보유한 특색들을 도시 자체의 역사에 주목한 인문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려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극동시베리아 도시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의 ‘러시아, 도시로 읽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프로젝트와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의 ‘시베리아/북극총서 시리즈’ 등의 학술 결과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본 글은 주로 각 도시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보 제공이나 특정 주제(시베리아횡단철도 경유지 등)와 연관된 분석에 집중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대상인 된 3개 도시를 역사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목표 아래 서술됐다.

* 본 기고문은 2021년 2월 발간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0-04: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시베리아 인문학의 학적 체계 구성: 지역학적 통섭과 정책공간 연계』에 포함된 제 글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기계형 2015, pp. 257-258.

2. 어촌마을 ‘해삼위’에서 국제무역도시로 성장한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는 현재 극동연방관구에 속한 프리모르스키변경주의 주도(州都)로, 동경 131.54도, 북위 43.8도에 위치해 있다. ‘동방’(보스토크, восток)을 ‘지배하다’(블라데트, владеть)라는 의미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해삼위’(海參崴)라 불리던 청나라의 영토였으나, 19세기 후반 러·중 영토분쟁 이후 러시아제국에 편입됐다.²⁾

1859년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Н.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 총독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직접 시찰한 뒤 이곳이 러시아제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 거점으로 활용될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항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1명의 러시아제국 군인들이 이 어촌에 상륙하여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이름의 초소와 기지를 건설했다.³⁾ 당시의 해군기지 건설과정을 지휘한 코마로프(Николай Комаров)와 부라초크(Евгений Бурачёк)는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의 창시자들로 평가받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의 지식인과 엘리트 관료들 사이에서는 태평양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솟구쳤다.⁴⁾ 대표적으로 게르첸(Александр Герцен)은 태평양이 ‘지중해의 미래’라고 외칠 정도였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1870년대 초부터 블라디보스토크로 행정 기능이 이전됐고, 해군 함대가 옮겨왔으며, 아태 물류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간파한 러시아 경제계 인사들도 모여들었다. 20세기 전반부가 되자 블라디보스토크는 이제 태평양의 주요 항구도시이자 무역항으로 급부상했다.

1903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최종 기착지이자 최초 출발점으로 결정된 것도 블라디보스토크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주요 물류 허브로 발전하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 당시 러시아제국은 총연장 9,288km에 달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는데, 189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기공식을 위해 차르 니콜라이 2세가 직접 참석하기까지 했다. 일부에서는 이 횡단철도가 깊이 잠들어 있던 시베리아를 흔들어 깨웠다고 표현했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개통으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지닌 무역항으로서의 발전 동력도 한층 배가됐다. 대형 증기선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철도와 상선이 결합한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이 비로소 빛을 발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블라디보스토크는 모든 면에서 배 이상 크게 발전했다.

21세기 초 러시아 정부는 서유럽과의 지지부진한 경제협력 대신 한·중·일의 동북아 및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푸틴의 기대가 일부나마 현실화한 것이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정상회담이었다. 도시는 보다 현대적으로 변모했고, 국제 물류 허브로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도 동반됐다. 비록 러시아연방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현재 후하지는 않지만,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러시아의 관문으로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발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2) 강윤경 2018, p. 133.

3) 박환·허승철 편 2003, p. 450; Habecker 2003, p. 96.

4) ibid, pp. 77-78.

3. 유형수들의 슬픈 기억을 간직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는 극동연방관구에 속한 사할린스카야주의 주도(州都)이다. ‘사할린’(Сахалин)은 몽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검은 강으로 들어가는 바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주민인 아이누족은 이곳을 ‘자작나무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882년 러시아인들에 의해 최초로 건설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원래 이름은 ‘블라디미로프카’(Блажимировка)였다. 잠시 일본에 점령됐던 시기인 1905~1945년 동안에는 ‘도요하라’(豊原)로 불리기도 했다. 1890년 이곳을 방문한 체호프에 따르면, 도시의 원래 이름인 블라디미로프카는 1881년에 이 섬에서 징역 노동을 관리하던 ‘블라디미르’(Владимир)란 교정관리자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⁵⁾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약 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⁶⁾ 이는 사할린스카야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다.

원래 사할린 섬이 유럽에 최초로 알려진 것은 17세기 중반으로, 네덜란드 탐험가인 프리스(M. Vries)가 북태평양을 향해하던 중 처음 이 섬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그러다 19세기에 일본 상인들이 사할린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먼저 시작했고, 이후 러시아도 이 지역의 풍부한 어장과 어족 자원(청어 등)에 눈독을 들였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8월에 이르러 소련은 사할린 전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후 1947년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 등의 지역이 사할린스카야주로 행정 편입됐다.

사할린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유형지’(Ссылка)로 오랜 기간 활용된 슬픈 역사 때문이다. 사할린 섬에 죄수들이 최초로 유배되기 시작한 때는 1873년이었다. 19세기 말인 1890년 사할린을 방문한 체호프는 이때 목격한 유형수들의 실상을 담은 『사할린 섬』이라는 책을 1895년에 출간했다.⁷⁾ 사할린 섬은 극동 북부지역 특유의 혹독한 환경과 고립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정당국자들이 죄수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유배지 중의 하나였다.

이런 역사로 인해 사할린은 유형의 아픔이 서린 기억이 섬 곳곳에 깊게 배여 있다. 20세기 초 사할린 섬의 거주민 중 원주민(4,000~5,000명)보다 유형자들(약 13,500명)의 수는 2배 이상 많았다.⁸⁾ 1890년에 사할린 섬을 방문한 체호프는 교정시설에서 벌어지는 유형수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와, 유형자를 따라 이주해온 가족 구성원(특히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끔찍한 생활상, 원주민인 아이누족과 니브히족이 러시아 유형수들로부터 받은 지나친 처우와 범죄 피해 등을 세밀하게 기록한 바 있다.

체호프는 3개월간의 사할린 섬 체류 중에 남쪽의 작은 마을이던 블라디미로프카(현재의 유즈노사할린스크)도 방문하여 당시의 모습과 생활상을 책에 담았다.⁹⁾ 당시 이곳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5) 체호프 2013, p. 323.

6)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https://xn----7sbiew6aadnema7p.xn--plai/sity_id.php?id=99 (검색일: 2022.01.20.).

7) 강덕수 외 2019, p. 604; 체호프 2013, p. 17.

8) 레이드 2000, p. 259.

9) 체호프 2013, pp. 323-327.

사는 곳을 ‘검은 강’이라고 불렀다. 1890년에 주민들의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유형지답게 자유민 여성은 한 명뿐이었다. 체호프는 사할린 남부에 있는 블라디미로프카의 농업잠재력을 북부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현재도 사할린 남부 지역의 농업잠재력은 러시아의 극동 북부지역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4. 모피 약탈의 역사를 극복한 국제무역항,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는 극동연방관구에 속한 캄차츠키 변경주의 주도(州都)로, 동경 158.39도, 북위 53.01도에 위치해 있다. 도시의 주민수는 2020년 기준 약 18만 명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러시아 전체 도시 중에 106위에 해당하는 대도시이다.¹⁰⁾ ‘캄차트카’(Камчатка) 반도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 지역의 원주민이 곳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한 ‘캄차다르’(Камчада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17세기의 칼미크족 출신 카자크인 이반 이바노프의 별명인 ‘캄차트’(Камчатый)에서 유래한 캄차트카 강(река Камчатка)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존재한다. 반면에 캄차츠키변경주의 주도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의 명칭은 그 기원이 정확히 알려져 있다. 도시의 이름을 구성하는 ‘페트로’(Петро)와 ‘파블로프’(Павлов)는 18세기 중반 베링 원정대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함선들인 ‘성(聖) 표트르’와 ‘성(聖) 파벨’호의 이름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¹¹⁾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 기록에서 캄차트카 반도는 17세기 중반부터 등장했다. 캄차트카에 진귀한 보물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697년 시베리아 정복에 일익을 담당했던 카자크 원정대가 이곳에 최초로 진입했다. 당시 거칠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알려진 아틀라소프(В. Атласов)가 야쿠츠크에서 출발한 원정대를 이끌고 캄차트카 반도를 탐험했다.

17세기 말 아틀라소프의 원정 이후 러시아제국은 캄차트카 지역을 영토로 편입했다.¹²⁾ 그러나 모피를 얻기 위해 카자크 용병들이 저지르는 범죄행각으로 현지의 대러 인식은 크게 악화됐다. 그리하여 1720년대부터 캄차트카 반도에서는 원주민과 러시아 원정대 사이의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출신의 탐험가인 베링의 북동항로 탐험 준비에 강제동원된 이텔멘족의 폭동과 반란은 1730년대 이 지역의 불안한 정세를 촉발한 주요 사건들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캄차트카 지역의 정세를 위기로 몰고 간 베링의 원정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를 역사에 등장시켰다. 1740년 베링의 2차 원정을 돕던 러시아인 항해사 엘라긴(Иван Елагин)은 겨울 정박지로 캄차트카 반도의 어느 해안 지역을 선택했다.¹³⁾ 그 당시 이곳의 명칭은 베링의 캄차트카 원정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함선들의 이름에서 유래한 페트로파블롭스크였

10) “100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по населению 2020 список РФ”, http://www.statdata.ru/largest_cities_russia (검색일: 2022.01.20.).

11) “История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https://pkgo.ru/region/index.php> (검색일: 2022.01.20.).

12) *ibid.*

13) *ibid.*

다. 조선 산업에 기대던 도시의 초기 역사는 모피 광풍으로 인한 추악한 기록들로만 채워졌고, 도시민들의 삶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했다. 19세기 초반 이곳을 방문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탐험가 코크레인(John Dundas Cochrane)은 ‘페트로파블롭스크는 마을로 대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경멸적인 어투로 조롱하기까지 했다.¹⁴⁾

그럼에도 페트로파블롭스크는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였다. 이 항구도시의 주요 장점은 북극권 탐험에 유리한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최북단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 근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이었다. 19세기에 극동의 이 외진 항구는 러시아와 미국에서 온 상인들이 모피와 고래를 거래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변모했다.¹⁵⁾ 그리고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는 1930년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소련 중앙정부는 이 도시에서 선박 수리와 같은 조선 산업을 육성했다. 군항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투자를 집중한 결과였다. 21세기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페트로파블롭스크는 현재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의 첨병도시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 단절된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이제야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5. 극동시베리아 도시 속의 한인들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나라 근대사와의 접점이 존재한다. 1863년 한인(韓人)의 첫 이주가 시작된 뒤 1870년대부터는 한인들의 계절성 노동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졌다.¹⁶⁾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영구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과 러시아제국의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된 1884년이었다. 한인 이주민의 대거 유입으로 19세기 후반 한인촌(韓人村)이라는 집단 거주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생길 정도로 이 곳은 연해주의 한인 이주민 네트워크 거점으로 성장했다. 한때 한인 이주민의 수는 최대 20만에 달할 정도로 상당했다.¹⁷⁾ 그러나 1930년대 스탈린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했고, 한인 네트워크는 큰 타격을 입었다. 냉전 시기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과의 연계가 사실상 단절됐지만, 1990년대부터 양자 사이의 관계는 다시 복원됐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과 한국기업들은 현지 한인이나 기업과 연계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활발한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사할린 지역도 한국과의 특별한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에 조선인들이 이곳에 광산노동자로 대규모 이주(혹은 강제징용)해 왔기 때문이다.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이곳으로 이주해 온 한반도 출신의 한인 수는 최대 15만 명에 달했다.¹⁸⁾ 그리고 종전 후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한인의 수도 43,000여 명이나 됐다. 그 결과 현재 사할린

14) 레이드 2000, p. 309.

15) 김창진 2014, p. 38.

16) Habecker 2003, p. 147.

17) 박대일 2018, pp. 219-220.

18) 김은희 편 2018, p. 46.

지역 인구의 민족 구성비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번째에 해당한다.¹⁹⁾ 사할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한인들 대부분은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는 극동시베리아 가장 동쪽이자 가장 북쪽에 위치한 외진 항구이기에 이곳으로 한인들의 발걸음은 상당 기간 동안 닿지 않았다. 20세기 중반에야 캄차트카 지역으로 한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대다수가 북한 출신으로 1940년대 말에 노동 이주로 유입됐다가 정착한 이들이었다.²⁰⁾ 현재 캄차트카에는 한인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에 살고 있다. 캄차트카의 한인들은 놀라운 경제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한국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한인 네트워크는 한국의 북극권 혹은 북방 진출에 있어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극동시베리아, 나아가 러시아 북극 지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존하는 수많은 한인 네트워크 기반과 높아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주요한 장점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진출하기에 앞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특색들을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우선적으로 터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극동시베리아의 각 도시들은 같은 듯 다른 역사적 스토리텔링과 사회적 발전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도시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려 한다면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쉽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문화교류는 경제적인 혜택을 즉각적으로 창출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연히 그 첫걸음은 인문학적 이해에 기초한 상호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이 그런 노력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덕수 외, 『러시아, 도시로 읽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 강윤경, “‘가까운 유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마이더스』, 연합마이더스, Vol. 2018 № 5, 2018.
- 기계형, “러시아제국의 정체성 구축하기 - 시베리아의 도시, 건축, 경관,”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한국러시아학회, 제49집, 2015.
- 김양주, “캄차트카 연구보고서,” 『한국시베리아연구』,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제6집.

19) 강덕수 외 2019, p. 591.

20) 김양주 2003, p. 336.

2003.

김은희 편, 『러시아연방주체 개관시리즈 - 사할린주』, 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8.

김창진, 『시베리아 예찬: 야생의 숲, 문명의 영혼』, 화성: 가을의 아침, 2014.

레이드, 안나, 『샤먼의 코트』, 윤철희, 서울: 미디어북스, 2003.

박대일, 『시베리안 나이트: 러시아 전문가의 시베리아 이야기』, 서울: 미래터, 2018.

박환 · 허승철 편, 『시베리아의 여명을 뚫고: <한러 친선특급> 9,938km 시베리아 대장정』, 서울: 지식마당 · 고려대학교 러시아문화연구소, 2003.

체호프, 안톤 파블로비치, 『안톤 체호프 사할린 섬』, 배대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Habecker, D. E., “Russian Urban Administration and The Chinese, Koreans and Japanese in Vladivostok, 1884-1922,” Doctor of Philosophy, Univ. of Maryland, 2003.

“100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по населению 2020 список РФ”,

http://www.statdata.ru/largest_cities_russia (검색일: 2022.01.20.).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https://xn----7sbiew6aadnema7p.xn--p1ai/sity_id.php?id=99 (검색일: 2022.01.20.).

“История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https://pkgo.ru/region/index.php> (검색일: 2022.01.20.).

북극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내용 분석*

계용택

(러시아리서치 센터)

러시아연방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적 규범이 아직까지 불완전한 탓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은 주로 명목민족, 즉 민족공화국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지역의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비록 1990년대에는 경제위기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나, 200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북극개발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북극개발은 북극토착소수민족들의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주어 민족소멸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 정부의 북극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인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2008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승인한「러시아 연방 북극정책 원칙 2020」계획이 마련되면서다. 2013년 2월에는 다시 푸틴 대통령이「러시아 연방 북극권 개발 전략」을 공포하여 북극 정책 2020을 기반으로 한 분야별 실천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의 북극 정책 추진 체계는 완성되게 되었다. 이후 2020년에 기존 북극정책 추진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35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 원칙”이 마련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에 ‘2035 러시아 북극 정책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Russian Federation State Policy in the Arctic to 2035)’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서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북극 온난화로 인한 자원개발 촉진과 북극 지역 인구 생활환경 개선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북극의 사회개발, 경제발전, 인프라 개발, 과학기술 개발, 환경보호, 국제협력 강화, 인구 및 영토 보호, 공공안전 확보, 군사안보 보장, 국경 보호로 나뉘어 있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건설과 영토 보호를 위한 군사력 재건과 보존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에 발표한 ‘2035 러시아 북극 정책 기본원칙’에서는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사회·경제 개발 분야에서 북극권 거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보장하고 의료지원과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다. 이

*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북극 지역 거주민의 삶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북극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정부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2035 러시아 북극 정책 기본원칙”에서 북극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 국민 및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국민 및 정부의 자국 거주 소수민족, 특히 북극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뉴스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석의 결과에 따라 북극 거주 소수민족에 대한 한국내 연구의 방향성을 효율성 있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뉴스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중요한 채널이다. 뉴스 기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타스 통신사’ 뉴스 텍스트로 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요 사건을 감지하고, 사건들 상호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사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요약된 사건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텍스트 분석기법과 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해 비정형 뉴스 텍스트를 정형화하여 정치-사회적 이슈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4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월 5일 까지 약17년간의 ‘타스 통신사’의 뉴스 기사 텍스트 가운데 ‘북극 민족(арктика народ)’으로 검색된 뉴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전체기사는 2401건이며 전체 단어수는 426063개, 중복을 포함하지 않는 단어 수는 31848개 이다.

본 연구는 뉴스기사 내용 분석을 위하여 동시 출현 단어 빈도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키워드의 네트워크 구조와 바이그램 및 트라이그램으로 내용을 가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 기사 텍스트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 절차와 핵심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위해 R의 TM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뉴스 기사 텍스트에서 공백제거, 소문자 변환, 마침표 제거, 불용어 처리, 단어 형태소 분석-변환 등의 정제를 거친 후 단어들 및 문서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문서행렬(Term document matrix)을 생성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텍스트마이닝 결과 도출 모델 및 시각화에 N-gram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및 워드클라우드, 의미연결망 모델을 사용하였다.

‘북극 민족(арктика народ)’으로 검색된 전체 전체 기사건수는 모두 2401건이다. 이들 뉴스를 타스통신사의 뉴스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숫자는 기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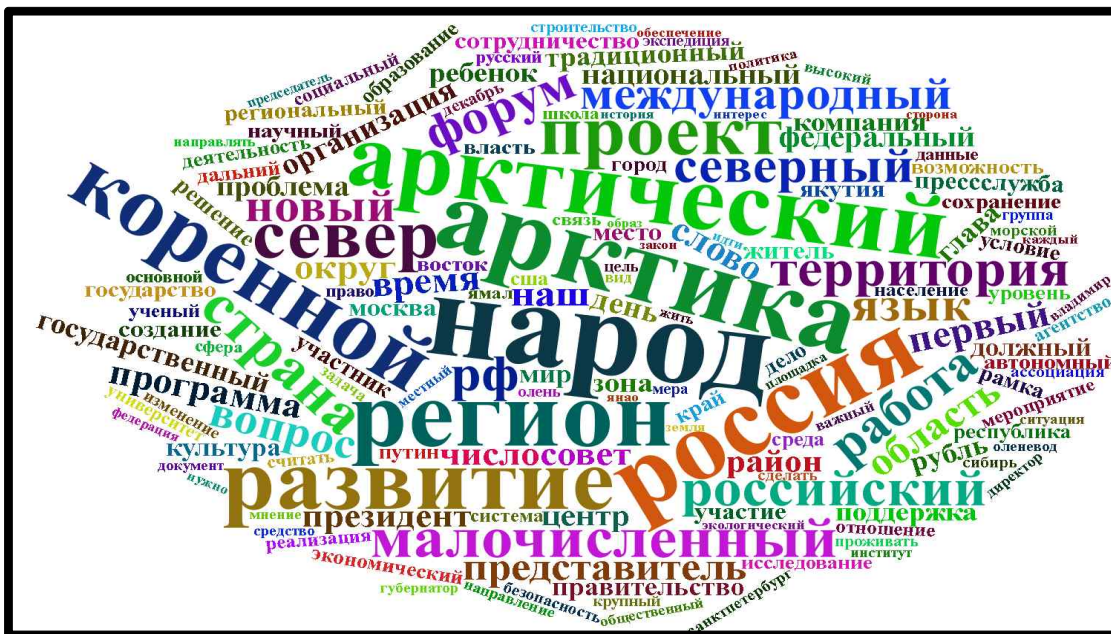
[사회 689, 국내 360, 경제 314, 정치 149, 국제-파노라마 134, 과학 113, 뉴스-파트너들 104, 우랄-뉴스 83, 문화 71, 시베리아-뉴스 62, 인터뷰 52, 북극-오늘 43, spb-뉴스 33, 사건사고 32, 아카이브 28, 프레스 15, 인포메이션 15, 국가-프로젝트 15, 군대-군산복합체 13, 스포츠

11, 오피니언 7, 모스크바 6, plus-one 6, 우주 6, 중소기업 6, 모스크바-지역 4, 북카프카즈 4, 지역-공무원 3, 아르한겔스크 주 3, 사람들-물건 3, 보도 자료 3, 사이언스 2, 무르만스크 주 2, 온라인-컨퍼런스 1, 고급-공무원 1, 당일 투표 1, vef-2017 1, 러시아 관광 1].

검색된 뉴스의 대부분은 사회, 국내, 경제, 정치, 국제-파노라마, 과학, 뉴스-파트너, 우랄-뉴스, 문화, 시베리아-뉴스 카테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의 뉴스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의 뉴스 기사 본문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수 분석 결과, 빈도수가 높은 상위 50개 단어 및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민족 5643, 북극 4898, 러시아 4597, 지역 4377, 북극의 4328, 발전 4062, 토착의 4025, 프로젝트 3289, 북방 3215, 국가 2727, 소수의 2711, 러시아의 2445, 영토 2422, 일(업무) 2371, 러연방 2366, 북방의 2321, 포럼 2280, 언어 2196, 새로운 2171, 국제적인 2144, 문제 2043, 주1839, 대표자 1823, 우리1764, 첫째의 1748, 시간 1683, 프로그램 1672, 단어1666, 관구1656, 위원회 1613, 숫자 1608, 대통령 1576].

<검색된 단어들로 구성된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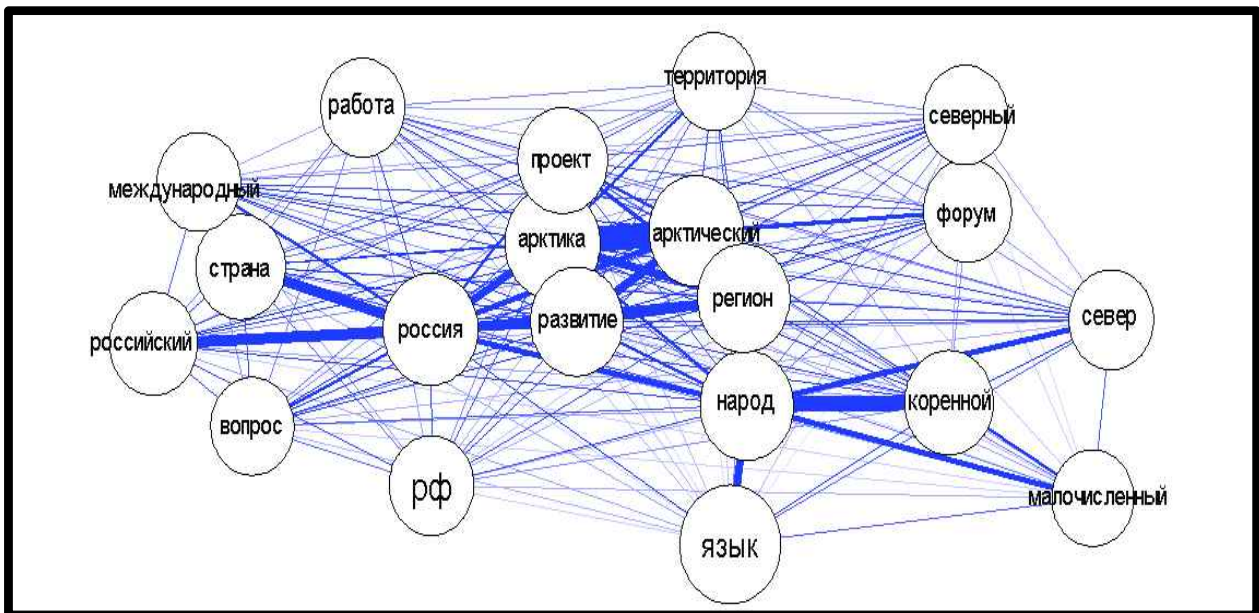


이에 반해 북극에 거주하는 토착민족 각각의 명칭에 대한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편이다. 대표적인 민족과 빈도수를 보면 [한티족 520, 에벤키족 332, 사미족 233, 돌간족 115, 만시족 112, 셀쿠프족 94, 뱁스족 69, 나가산족 63, 유카기리족 63, 에벤족 51, 축치족 48, 카락족 31, 알레우트족 30, 케트족 27, 우데게이족 26, 에스키모족 21, 니브흐족 20, 이텔멘족 17, 울리치족 14, 오로치족 10]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소수민족 특성과 관련된 음악, 무용, 관습, 종교, 놀이, 거주지, 문자, 역사, 전통, 정체성, 음식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출현빈도를 보여준다.

단어간의 네트워크를 보면 어떤 단어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러시아 북극 지역 개발’이 매우 두꺼운 선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이들 단어 간의 관련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러시아는 북극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족(народ)은 북극개발에 있어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검색어인 민족(народ)을 중심으로는 ‘토착의, 언어, 북부, 소수의’ 단어들이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토착 소수 민족 언어’의 상관도가 높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어 간의 네트워크 모습>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조합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어보다 크고 문장보다 작은 단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어의 연쇄 추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단어의 연쇄 추출을 엔그램(n-gram)이라고 한다. 언어 분석 (연속출현 단어, bi-gram)을 통해 나타나는 단어들의 연결망에서는 특정 단어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관계가 나타난다. 언어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단어 언어 분석(bi-gram)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 단어들을 2개 단위로 묶어 분석하며, 1개 단어만으로는 원래 이어진 단어들의 의미가 상실되는 점을 보완하여 원래 단어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 형태소 분석 결과를 2개 단어 단위로 묶어서 이웃하는 각 단어 쌍의 수만큼 반복하는 형태로 2단어 언어 데이터를 생성한다. 2단어 언어분석은 연산 결과표만으로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언어 분석 관계도로 시각화하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뉴스기사 텍스트 바이그램’ 그림은 전체 기사 본문에서 추출한 바이그램 단어 쌍 및 단어 쌍 간의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이다. 바이그램은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2개의 연속되는 단어 가운데 빈도수 높은 것들을, 의미가 연결되는 단어 쌍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바이그램은

0.11), 사미족(саам 0.05) 등이 있다.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있어 북극토착소수민족의 대표로 한티족 및 에벤족, 에벤키족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북극 토착소수민족별 상관도가 높은 단어들>

키워드	상관도 높은 단어
한티족	네네쯔족, 셸쿠프족, 심볼, 오브스키(обский) 가스화학 콤플렉스, 유그라족, 만시족, 민족, 토착의, (각 정의)국, 유고르스크의, 자치(주)의, 북방토착소수민족, 소수(민족)의, 한티만시스크, 북방, 습관의, 의식(儀式), 노래,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한티만시스크의, 한티-만시 자치구, 문학의, 구비문학, 명절, 모습, 명료한, 흑사병(돼지)
에벤키족	에벤키의, 아무르의, 타이가, 생활양식, 언어학자, 지인(교제), 언어, 돌간족, 친절함, 기동 모양의 물건, 예카테리나, 느가나산족, 착용자(보유자), 장식적인, 마을, 사전, 문자(문헌), 자바이칼의, 치밀한, 종족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희박한, 일상의, 언어의, 방언(사투리), 대학학과, 순록털매, 에벤키 자치구, 텍스트
돌간족	돌간족의, 느가산족, 볼로찬카 마을, 타이미르, 창조, 촌락, 에벤크족, 치밀한, 무용, 네네쯔족, 포포브,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자주적인, 의상, 가족, 전통관례, 셸쿠프족, 노래, 문자(문헌), 두딘카, 에벤족, 섭리, 인종, 민족, 친족, 무상원조, 제조, 도구(악기), 인종의, 초중고생, 집(가정용)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셸쿠프족	네네쯔족, 한티족, 야말로-네네쯔 자치구, 북방토착소수민족, 모습, 언어학자, 토착의, 야말로네네쯔의, 프리우랄의, 대표자, 북방인들, 느가산족, 야말의, 타쵸프스키(라이온), 언어, 전러시아의, 인구, 숫자, 문자(문헌), 나이 어린, 야말, 인종의, 지역연구, 민족, 공보 담당실, 돌간족, 인터넷, 푸로브스키(라이온), 소수의
나가산족	타이미르, 돌간족, 볼로찬카 마을, 섭리, 에벤족, 문자(문헌), 돌간족의, 마을, 네네쯔족, 종족, 두딘카,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툰드라, 조상(선조), 인종의, 셸쿠프족, 툰드라의, 지방(끝)의, 전통, 크라스노야르스크, 스베틀라나, 유목의, 춤(천막), 에벤키족, 마을, 관습, 세기, 니켈
에벤족	축치족, 하바로프의, 정체성, 종족의, 마가단의, 민족, 에벤키족, 지방(край), 교과서, 보조금, 시설, 언어학자, 토착의, 돌간족의, 소멸, 언어, 보스톡(восток), 프리모르스키의, 하바로프스크, 희망하는, 상실, 방언, 가르치는 것, 교수, 세베르보스토치니이, 연주, 소수의, 북방, 학습의, 유전학의
축치족	추코트의, 추코트카, 에벤족, 조상(선조), 미하일, 정체성, 지향(의지), 상실, 음악의, 마을, 교역(거래), 희망하는, 아나디리(지명), 주거지, 전통, 민족, 종족의, 확신하는, 선명한, 거주자

뉴스기사에서 북극 토착소수민족에 연관된 요소로 민족의 전통, 언어, 생활 모습 등의 민족자체 특성 요소뿐만 아니라 북방토착소수민족협회 및 민족문제 관련 연방 위원회 등 공공-정부기관 등이 등장한다. 이것은 민족문제에서 자치단체 또는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도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토착소수민족에 따라 뉴스기사의 시각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극토착소수민족으로 대표되는 한티족의 경우 ‘오브스키 가스화학 콤플렉스’ 및 한티 만시 자치구 관련 정치-경제적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비중 있게 나타내는 동시에, 한티족의 전통, 의식(儀式), 노래,

구비문학, 명절 등과 같은 민족적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돌간족의 경우 무용, 의상, 가죽, 전통관례, 노래, 악기, 문자(문헌), 거주지등 주로 민족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축치족의 경우 전통, 음악 등의 민족적 특성과 더불어 민족의 고유성 및 지향점, 의지 등이 포함된 민족 정체성이 부각되었다.

바이그램 및 상관관계 분석에서 북극 토착소수민족 단어들의 상관도는 북극개발 프로젝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검색된 '타스 통신사'의 전체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러시아 북극지역 사회경제적 개발' 및 '북극지역 소수민족 언어 권리'이며, 전체 텍스트 문맥상 북극의 소수민족 문제는 러시아의 북극개발 과정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고고학 자료로 본 사할린섬 중기신석기시대 해양자원 활용에 대한 일고찰

방민규

(국립해양박물관)

목 차

- I. 머리말
- II. 소니문화(культура Сони)의 고고학적 배경
- III. 중기 신석기시대 원주민의 해양자원 활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사할린의 최초 인류 발자취는 적어도 23만 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A.A. 바실리예프스키 2017). 지난 20년간 사할린에서 진행된 사할린-2 프로젝트(1994-2009)¹⁾는 장기간의 공사와 파이프라인 공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개발 지역 내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공사를 진행했다. 구제발굴을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사할린의 중기신석기시대 소니문화에 속하는 여러 유적들 또한 발견되었다(A.A. 바실리예프스키 외 2016).

한반도의 선사문화는 시베리아, 극동 연해주 그리고 사할린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시대에 걸쳐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석기시대 고고학 연구성과들과 관련하여 한국 학계는 러시아학자들의 최근 연구성과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각으로 러시아 연구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이헌종 2007). 이런 결과는 양 지역 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양측이 제시한 시대 구분과 연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양측의 연대 차에 대한 검토 및 정리가 우선적으로

1) 사할린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로 오희츠크해의 필툰-아스토크스(Piltun-Astokhskoye) 유전과 룬스코예(Lunskoe) 천연 가스전 개발과 연안의 관련 기반시설 개발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트랜스사할린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사할린에너지와 사할린국립대학교가 구제발굴을 진행했다(2017).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양 지역의 자료를 양측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할린의 고고학 발굴 연구성과는 그간 국내 학계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김재운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할린의 중기신석기시대 문화인 소니문화(культура Сони)의 고고학자료를 통해 해양자원 활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II. 소니문화(культура Сони)의 고고학적 배경

소니문화는 사할린 남부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로 방사성탄소연대 결과는 5,500~5,300년 전으로 나타난다(Kunikita et al., 2007). 지금까지 25개 정도의 유적이 발굴되어 이 지역의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할린 남부 지역(모네론 섬 포함)만을 한정했으나 2000년대 이후 북위 50°와 52°선에서도 발견되어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의 주거지들은 모두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 절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발 70m 높이의 절벽을 통해 주변환경을 활용한 방어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주거 유적인 쿠즈네초보-3, 4(Кузнецово 3, 4), 스타로두부스꼬예-3(Стародубское 3), 슬라브나야-4(Славная 4), 차이보-6(Чайво 6) 유적들을 통해 사할린 남부 신석기시대 중기의 문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쿠즈네초보-3, 4 주거 유적

사할린 섬의 최남단 라페루즈 해협에서 북으로 22km 지점에 위치한 주거지 유적이다. 쿠즈네초보 강을 왼쪽으로 끼고 해발 6-15m 높이에 형성되었다. 1937~1940년대 일본인 고고학자인 기무라 신로쿠(Kimyra Sinroky)와 이토 노부오(Ito Nobuo)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근처 강의 아이누식 지명을 따라 ‘소니’ 유적으로 명명하였다(Ниикока, Утагава, 1990, с. 66-69). 1979년부터 시작된 발굴은 골루베브(Голубев В. А.)와 바실리에브스끼(Василевский А. А.)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1985-86년 수혈주거지 두 곳을 발굴하였다. 발굴 면적은 200m²이었으며, 3호 주거지에서 획득한 불탄재의 분석을 통해 2개의 절대연대(5770±140년, 5960±140년)와 4호 주거지(5648±460년)에서 1개의 결과값을 확인하였다(Василевский 1995). 이들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심하게 훼손이 되었지만 일부 남아 있는 주거지의 양상을 통해 3호 주거지와 같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구멍을 뚫은 석제품과 함께 토기가 발견되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간이 계속된 지역으로 이 주거지들과 유물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 쿠즈네초보-3 출토 소니유형 토기(A.A. 바실리에프스키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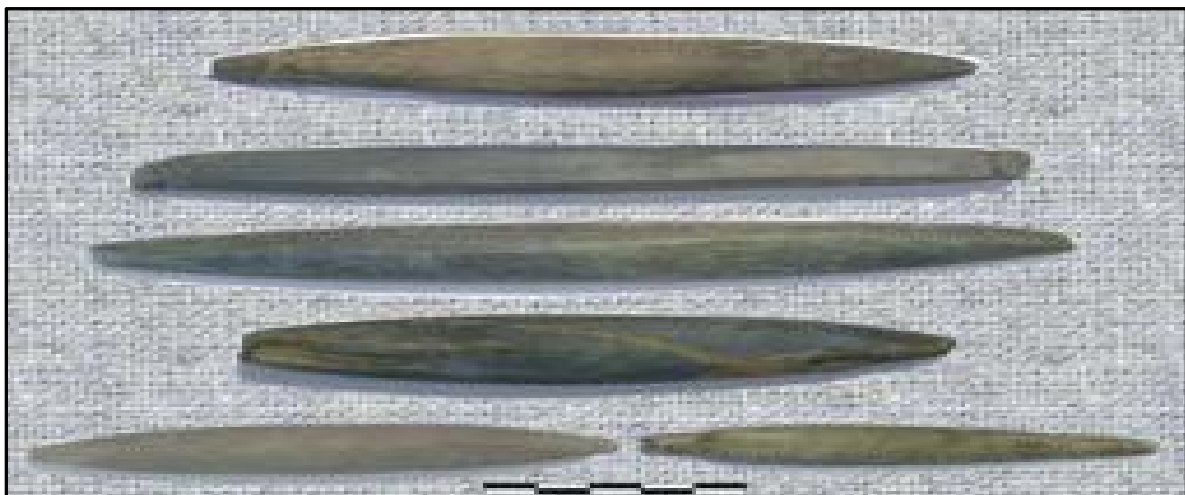


2. 스파로두부스코예-3 주거 유적

이 유적은 1930년대 일본인 고고학자 이토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오츠나오카()로 명명되었다. 규모가 큰 마을인 스파로두부스코예 3(3지점) 마을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된 양식의 주거 양상과 함께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 해안 테라스의 12~15m 지점에 위치한다.

154호 주거지와 문화층을 통해 소니문화로 분류되었으며, 초기 철기시대 또는 후기 신석기시대로 보고되었다(Василевский, Плотников 1992). 주거지에서 나온 목탄 분석을 통해 얻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은 6588 ± 125 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기 내벽의 탄소 침전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방사성연대측정값보다 더 오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8660 ± 70 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스파로두부스코예-3 출토 간석기(A.A. 바실리에프스키 외 2016)



3. 슬라브나야-4 주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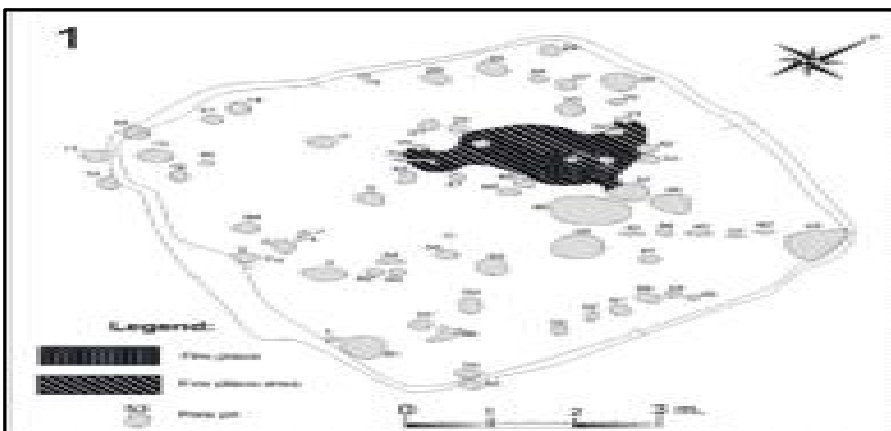
2006년 두 번의 발굴을 통해 슬라브나야-4 주거지는 소니문화로 분류되었다. 2회차 발굴에서 이른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각각 8100 ± 50 BP, 8135 ± 50 BP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보여주었다(Грищенко 2011). 하지만 소니유형 토기의 출토로 보아 이 주거지의 연대는 6,200~5,5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3회차 발굴에서는 주거지가 5,450~5,1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슬라브나야 4 주거 유적은 이른 신석기시대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토기 내벽의 두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2회차 발굴 출토 토기는 내벽 두께가 10~16mm이지만, 3회차 발굴 출토 토기의 내벽두께는 9~10mm로 소니문화 토기는 후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기 성형 과정에서 두께는 얇게 하면서 강도는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이 토기 성형 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4. 차이보-6(2지점) 주거 유적

차이보 6(2지점) 주거 유적은 그리센코(2008)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소니문화의 편년설정과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남쪽이 아닌 사할린 북부 차이보 만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거지 크기는 6×6m 정도이며, 북쪽벽에 화덕이 조성되어 있다. 방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균일한 벽체와 복도 및 출구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 주거지 형태와 발견된 도구들은 소니문화유형으로 분류된다. 출토된 석기들은 양쪽으로 다듬어진 칼날을 비롯하여 길이 10cm 내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발굴을 통해 수습된 토기들은 복원이 가능해 토기 2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토기의 모습은 평평한 저부와 둥근 몸체와 함께 구연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6). 토기 표면은 대체적으로 거칠고 불에 탄 흔적이 잘 남아 있다. 황갈색을 띠고 있는 동체부 표면에는 문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목탄 시료를 통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화덕 시료는 6945 ± 90 년을 나타냈으며, 벽 근처 시료에서는 6895 ± 100 년의 결과값을 얻었다.

<그림 3> 차이보-6(2지점) 주거 유적(A.A. 바실리에프스키 외 2016)



<그림 4> 소니문화의 신석기시대 유적(A.A. 바실리에프스키 외 2016)



신석기시대 소니문화유형에 대해서는 슈빈 외(1982), 골루베브(1986), 바실리에브스키 외(1986), 골루베브 외(1987), 쥘신호브스카야 외(1987) 바실리에브스키(2008) 등이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유적과 유물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소니문화유형을 분류하였다.

5. 고고학자료로 본 소니문화의 특징

(1) 주거지

대표적인 소니문화의 주거지인 쿠즈네초보 3, 스파로두부스코예 3, 슬라브나야 4 주거지들은 모서리가 무딘 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표면에서 최소 0.15~0.25m 땅속으로 조성되었으며 최대 0.5m까지 파고 들어간 것도 있다(반수혈주거지). 일부에서는 0.8~0.9m 높이의 벽체가 조성된 것도 발견되었는데 모두 모서리가 무딘 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의 길이는 보통 지름이 4m에서 큰 것은 10m까지 다양하다. 또한 외부출입구를 조성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주거지 바닥에는 기둥구멍이 있으며 벽면밑에는 좁은 홈이 조성되어 있다. 쿠츠네초

보 3 주거 유적의 2기, 스타로두부스꼬예 3에서 1기, 슬라브나야 4에서 1기의 화덕이 발견되었는데 쥘몽문화와 달리 소니문화에서는 화덕 주위에 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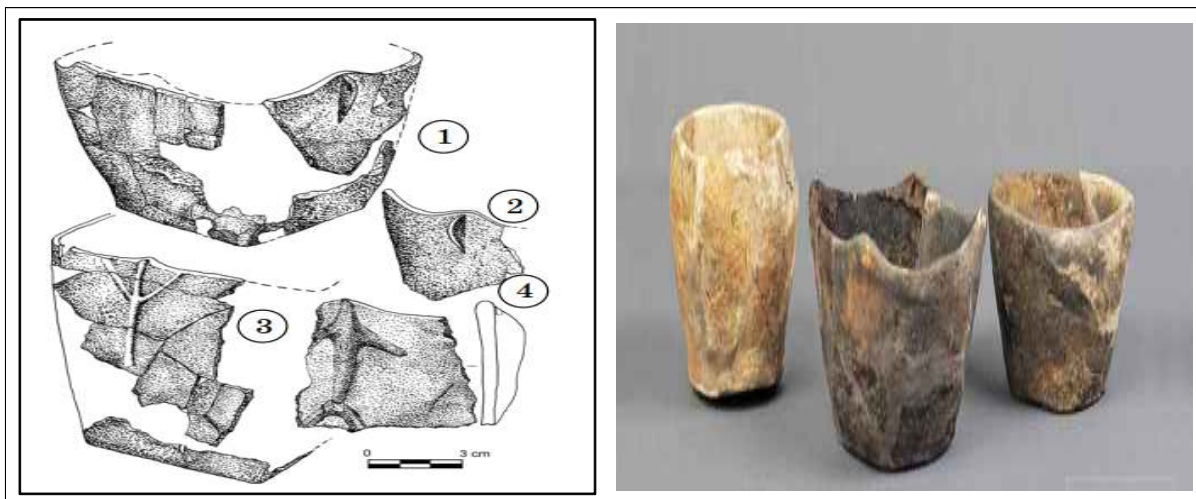
소니유형의 토기는 점토에 광물을 포함한 천연 첨가제가 도입되었다. 첨가제의 재료로는 바다 연체동물 또는 잘게 썬 풀 등이 포함된다. 토기를 만드는 기술은 점토띠를 감아 올리는 형태를 보이며 표면은 시문이 없는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토기 표면은 젖은 손으로 정리하였으며,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유약 등을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태토의 산성도가 산화를 유발하여 토기에 불순물과 구멍이 형성되어 투수성이 높아져 강도가 약해지게 된다. 토기는 보통 400~500°C 사이에서 구워지고 토기 색깔은 밝은 갈색을 띠고 있다. 토기의 형태는 모두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바닥은 평평하고 각진 방향의 형태를 갖고 있다. 바닥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며 구연부가 넓게 열려 있는 형태이다.

토기 몸체는 대부분 직선이며 구연부에서 살짝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표면은 대부분 문양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단한 도구를 통해 작은 물결 모양이나 가로, 세로로 장식된 토기들도 발견된다. 토기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작은편이다. 높이는 10~20cm 사이이며, 바닥의 직경은 7~12cm, 구연부의 직경은 12~15cm 내외이다. 토기의 두께는 6~8cm이며, 두꺼운 것은 1cm까지 한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비교한 결과 토기제작 발전과 시대 구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쿠즈네초보 3, 슬라브나야 4(2회 발굴), 차이보 6 주거지의 연대가 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슬라브나야 4(3회 발굴), 쿠즈네초보 4 등을 비롯한 다른 유적들은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골루예보 외 1987). 쿠즈네초보 3, 슬라브나야 4(2회 발굴), 차이보 6 주거 유적 출토 토기들은 토기 두께가 균일하지 않지만, 슬라브나야 4(3회 발굴), 쿠즈네초보 4 출토 토기들의 두께는 6~8mm 내외의 균일한 외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단계의 토기들은 장식이 없거나 토기 표면에 간단하게 수직으로 돌출되게 장식한 것이 보통이다. 후기로 갈수록 표면에 좀 더 복잡한 기하학 무늬의 장식을 하게 된다.

<그림 5> 소니유형 토기 : 사도브니끼 2(Садовники 2)주거지 출토(슈빈 1982)



Ⅲ. 중기 신석기시대 원주민의 삶과 해양자원 활용

플라이스토세 말기 지구온난화의 결과로(15,000~12,000년 전)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아 지구에는 극적인 해수면의 상승이 나타났다. 지금과 비교하면 해수면은 3m 정도 높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호수, 늪, 강들이 만들어지며 수생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대형육상 동물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수천 년 동안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표 1, 그림 8).

고고학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할린 원주민의 자원활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사할린동쪽 지역 석회암 동굴에서(12,000~8,000년 전) 발견되었다. 적어도 10,000명의 사람이 살았으므로 추정되는데 화덕, 석기, 부서진 동물 뼈조각(곰, 늑대, 점박이사슴, 사향노루, 땅다람쥐등), 호랑이, 동굴사자, 그리고 어린이의 유치가 함께 발견되었다. 오스탄틴세바야 동굴에서는 곰의 두개골에 박편석기가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창끝에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창을 통해 산과 바다에서 큰 동물들을 사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냥은 육상동물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섬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찾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식량을 찾기 위해 이주하게끔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동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게 된다. 오호츠크해와 동해의 섬 지역에서 신석기시대로의 이행이 진행되는데, 초기에는 계절적인 조건으로 한정되었다. 겨울에는 사냥꾼들이 얼음 위에서 물개를 잡고, 봄에는 5월에서 11월까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바다동물을 잡았다. 연어 시즌은 계속 되었고, 가을에는 사냥 뿐만 아니라 열매 채집 또한 효과적이었다. 이런 생계방식은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가용 자원의 안정화를 가져오게 되며 해안 근처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림 6> 해양포유류 공예품 및 어망 봉돌(A.A. 바실리에프스키 외 2016)



사할린의 초기 신석기 문화는 50여 개의 유적을 통해 알려졌는데 일부만이 발굴된 상태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초기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남쪽의 스파로두브스코예 3(하층), 포레취예 4()와 북쪽의 임친-1, 오도푸토-1 그리고 섬 중앙의 바이다 산의 동굴 유적인 오스타트세바야가 있다. 발견된 유물의 분석을 통해 초기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낚시도구를 제작했으며, 쯤돌날을 계속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들은 곳곳에 형성되었는데 해안가와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주거지는 만 연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시기 사람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에서는 수많은 목제도구와 함께 선박제작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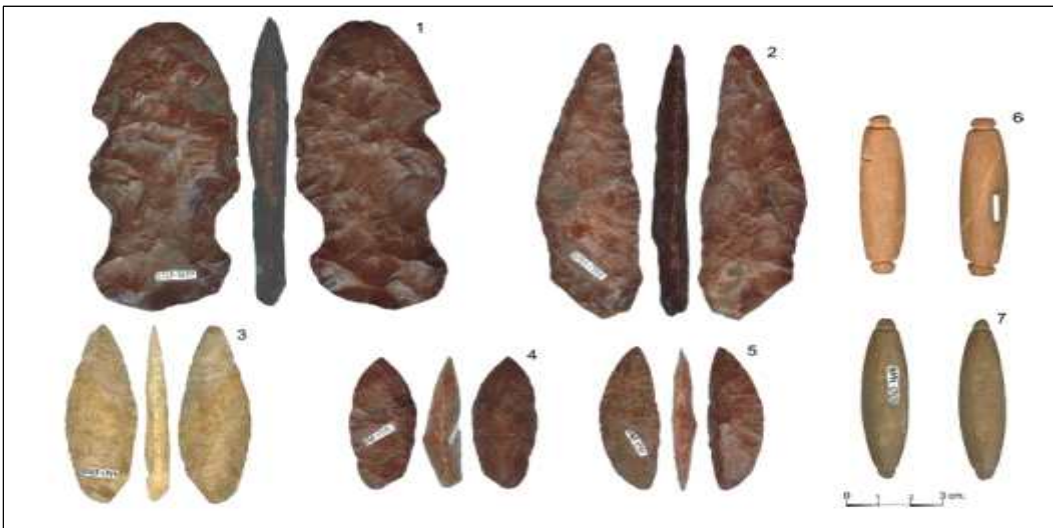
6천 년 전 남서부 사할린의 신석기시대 원주민들은 작은 섬 등을 이동하며 해양포유류를 포획하기 위해 계절별 사냥여행을 떠났다. 석기와 토기의 절대연대 측정을 통해 이런 생계방식의 편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문화층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12,000~11,000년, 8,000~6,000년 그리고 3,700~2,500년으로 구분된다. 이 기간 동안 섬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안정적인 삶이 지속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갈등 상황이 야기되며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전 시기와 달리 신석기시대가 되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데 우선 물고기와 동물을 포획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강 이외에도 심해에서 사는 상어, 돌고래 그리고 바다표범, 바다사자 등의 포유류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낚시도구와 선박과 같은 운송수단의 제작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중기 신석기시대 소니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쿠즈네초보 3, 사도브니끼 2, 브흐타, 스파로두브스코예 3 주거지들은 사할린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네모난 바닥을 갖고 있는 소니유형 토기는 중부 및 북부 사할린에도 나타난다. 7,000~6,000년 전 등장한 이 원주민들은 주로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해양자원을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 정도로 해양자원을 토대로 한 문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니문화는 800~1,000년 정도 존속되고 사라진 것으로 러시아 학계는 보고 있다. 인접한 홋카이도와 쿠릴열도와 달리 소니인들의 주거지는 원형이 아닌 방형의 주거지를 짓고 살았다. 반수혈 주거지 안에 화덕은 중앙이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벽체 앞으로 지붕 기둥들이 있다. 스파로두브스코예 3 주거지에서는 견과류, 해양동물, 새뼈가 발견되었다. 또한 쿠즈네초보 3 주거 유적에서는 대형 어류와 물개의 척추뼈가 출토되었다. 이는 남부 사할린의 소니인들의 삶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의 크기는 4~8m의 폭으로 5~6채의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와 접하는 만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 모두에서 다량의 물고기와 물개의 뼈가 발견되어 소니인들의 생계경제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어로 생활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강을 끼고 있는 50km의 해안가를 따라 4~5개 주거군이 분포하고 있고, 한 주거군에는 보통 50~2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시아학계는 소니문화에 대한 기원과 관련하여 아직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토기 태토의 혼합물, 구연부의 삼각형 돌출부의 존재, 표면문양 장식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자생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갖고 온 문화로 보고 있다. 특히 남쪽에 기반한 초기 조몬시대²⁾ 문화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점에서는 차이를 보여 준다. 소

니 토기 유형은 조몬시대 토기와는 차이가 있는데 조몬토기가 토기 표면에 새끼줄 문양이 있는 반면에 소니토기 유형은 몸체에 거의 문양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초기 신석기시대 새로운 전통인 조몬시대 토기에는 토기 표면 전체에 시문이 되어 있다. 소니 토기 유형은 토기 디자인의 단순함에서도 차이가 난다. 소니 토기유형 단계에서는 바닥이 평평하고 사각형을 띠고 있지만, 조몬토기는 바닥이 뾰족하고 둥근형태를 갖고 있다. 일본 남부 초기 조몬시대 토기에 사각형 및 타원형의 전통이 나타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소니유형 토기와 홋카이도의 초기 조몬시대 토기 유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구연부의 삼각형 돌출부의 존재와 표면 장식 등의 소니유형 토기는 일본 열도 북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형태이다. 이런 장식은 남쪽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할린에 5,000년전에는 이미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슬라브니아 주거지 출토 석기 및 골제 어망봉돌(A.A. 바실리에프스키 외 2016)



소니문화의 원주민들은 주변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수렵과 어로의 생계양식을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모네론 섬 콜로게르 사육적이다. 섬 사이의 해협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과 선박이 필요하다. 모네론 섬의 주된 생계활동은 해양 동물의 사냥과 채취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다. 섬에는 토지를 활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연어는 모네론 강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니문화의 원주민들은 모네론 섬의 바다포유류를 사냥하는데 매력을 느꼈으며 적당한 장소로 콜로게르사를 선택했던 것이다.

소니문화 원주민들의 주거지는 주로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에서 보이는 층위로 보아 소니문화의 주된 시기는 중기 신석기시대로 보여진다. 아직 소니문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홋카이도 등의 북부보다는 남쪽 조몬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조몬시대(縄文時代)는 일본의 신석기시대 중 기원전 1만 4500년부터 기원전 300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석기시대의 구분으로는 기원전 7000년까지의 전반기는 후기 구석기시대, 후반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IV. 맺음말

고고학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신석기시대 사할린 원주민의 자원활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사할린 동쪽 지역 석회암 동굴에서(12,000~8,000년 전) 처음 발견되었다. 소니문화는 사할린 남부 신석기시대 중기문화로 5,500~5,300년 전 출현해 800~1,000년 정도 존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25개 정도의 유적이 발굴되어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적들은 대부분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지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거 유적인 쿠즈네초보 3, 4(Кузнецово 3, 4), 스타로두부스꼬예 3(Стародубское 3), 슬라브나야 4(Славная 4), 차이보 6(Чайво 6) 유적들은 평면형태가 사각형인 반수혈주거지들이다. 4~5개의 주거지들로 구성된 주거군이 해안가에 따라 집중분포 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화덕과 함께 바닥이 평평하고 몸체가 네모난, 표면 장식이 없고 삼각형 돌출부가 구연부에 장식된 소니유형 토기들이 발견되었다. 주거지에서 어망추, 해양동물형상의 공예품 그리고 대형어류와 해상포유류의 뼈들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소니문화 원주민들은 해양을 토대로 사할린섬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할린섬의 중기 신석기시대에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신석기시대의 양상을 그려보는 데는 다소 부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앞으로 꾸준한 자료검토와 연구를 통해 사할린섬의 신석기시대 모습을 복원하고 동북아시아 전체 지역의 신석기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재윤 (2017). 『러시아 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 서경문화사.
- 윤성학 (2021). 『모피로드』. K북스.
- 이상규 (2020).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pp. 134-138.
- 이은경 (2021). “동북아시아 교류와 충돌, 혼종문화의 점점 사할린.” 『유럽사회문화』. 제27호, pp. 191-220.
- 이헌종 (2007). “시베리아 후기구석기문화의 최근 연구와 공동연구의 전망.” 『한국구석기학보』. 제 16호, pp. 81-96.
- 정석배 (2008). “쁘리바이칼 지역의 신석기문화.”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권 2호, pp. 81-96.

Alkin S.V. (2014). 동시베리아 자바이칼 동부 신석기. *문물연구* 25권 25호, pp. 161-176.

Kunikita D., Yoshida K., Miyazaki Y., Saito K., Endo A., Matsuzaki H., Ito S., Kobayashi T., Fujimoto T., Kuznetsov A. M., Krupyanko A. A., Tabarev A. M. (2007). "Analysis of radiocarbon dates of an archaeological site in the Russian Far East: The marine reservoir effect as seen on charred remains on pottery." *Nucl. Instr. and Meth. in Phys. Res. B*, 259. Pp. 467-473.

Popov, A.N. and Andrei V.T. (2008) "Neolithic cul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Technological evolution and cultural sequence." *TÜBA-AR XI*, pp. 191-220.

Василевский А.А., Плотников Н.В. (1992). "Периодизация айн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Сахалине" Б. О. Пилсуд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 кон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 краевед. музей. Т. 2: 119-124.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2008). КАМЕННЫЙ ВЕК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412 с.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Грищенко В. А. (2016). "ХРОНОЛОГИЯ, ПЕРИОДИЗАЦИЯ И ОСНОВНЫЕ ПРИЗНАКИ КУЛЬТУРЫ СОНИ."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No.23, С. 30-46.

Василевский А. А. (2008). "Сони -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го неолита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Неолит и неолитизация бассейна Японского моря: человек и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ндшафт*.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ГУ, С. 36-48.

Грищенко В. А. (2008).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поселении Чайво-6 пункт 2,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еные запис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Вып. 7.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 26-37

Грищенко В. А. (2011). "Ранний неолит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во СахГУ, 184 с.

Ито Н. (1942). "Карафуто сэнси дзидай док хэннэнсики рон. Есида хакуси цуйт окинэн кокуси ронсю (Годовой альманах керамики д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ериода Карафуто." *Альм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в память профессора Есид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попытка представления хронологии доисторической керамики на Сахалине. Кокусю Ронсю, С. 17-44 (на яп. яз.)

Грищенко В. А. (2008).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поселении Чайво-6 пункт 2,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еные запис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статей*. Вып. 7.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 26-37.

Голубев В. А. (1987). “Жущиховская И. С. Неоли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свете анализа керам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Вопросы археолог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ладивосток: ИИАЭ ДВО АН СССР, С. 25-33.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нвестмент Компани Лтд (2017).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С. 12-147.

Высоков М.С., Василевский А.А., Костанов А.И., Ищенко М.И. (2008).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чала XXI столетия, С. 155-167.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 서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